



JCI 인증의료기관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2016 0708

Vol. 118

Smart Choice Best Care

인하대병원

특집_ JCI 3차 인증 Medical Point_ 이룬둥이 Special People_ 故 이용각 인하중앙의료원 초대 의료원장 Health Report_ 여름철 건강식



아침의 향기

아침마다
 소나무 향기에
 잠이 깨어
 창문을 열고
 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솔잎처럼 예리한 지혜와
 푸른 향기로
 나의 사랑이
 변함없기를

찬물에 세수하다 말고
 비누향기 속에 풀리는
 나의 아침에게
 인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은유하게 녹아서
 누군가에게 향기를 묻히는
 정다운 벗이기를
 평화의 노래이기를



06



22



28

인하대병원

Jul

+

Aug 2016 Vol.118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인하대병원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건강 한 걸음

I 특집 I

JCI 3차 인증

- 05 Opening Ceremony - 김영모 의료원장
- 06 JCI 좌담회
- 10 JCI인증 위한 우리의 열정

- 12 **Medical point** 가장 작지만 가장 용감한 아이들, 이른둥이들
- 16 **Today INHA** 우주관광시대, 인하대병원이 이끌어 갑니다!

사랑 두 걸음

- 18 **어디까지 가봤니** 인천 골목이 품은 이야기 8 - 사동
- 22 **Special People** 故 이용각 인하중앙의료원 초대 의료원장
- 24 **INHA Post** 핫 트렌드 래시가드

나눔 세 걸음

- 26 **Health Report** 여름철 건강식
- 28 **Change the INHA** 환자안전 시리즈 (16) - "생생 인하통~"
- 30 **INHA Focus** 웹툰 작가 강풀과, 심뇌혈관질환 홍보 콘텐츠 제작
- 32 **인하침표** 생명존중콘서트 그 후 이야기...
- 34 **톡톡 약물상담** 유행성 결막염 예방과 올바른 안약 사용법
- 35 **병원 탐방** 효사랑요양병원 이민호 병원장

INHA NEWS

- 36 **병원소식** 인하대병원 소식
- 38 언론에 비친 인하대병원
- 39 **Info Desk** 건강교실, 교육/전시/공연 안내, 파랑새 소식



표지_ JCI 3차 인증 - JCI 좌담회



우리의 멈추지 않는 노력, 오늘의 약속! ‘환자중심, 환자안전’이 최우선으로!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이하 JCI), 인하대병원은 JCI 3차 인증을 획득했다.
어느 때보다 차분하게 준비된 3차 인증을 끝낸 김영모 의료원장은 멈추지 않는 노력을 약속한다.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여준 전 직원의 땀방울과 눈시울을 적셨던 순간순간이 헛되지 않도록 작은 행동 하나에도 모범이 되겠다는 다짐을 또다시 해본다.

병원 내 안전장치 세 번째 인증으로 더 견고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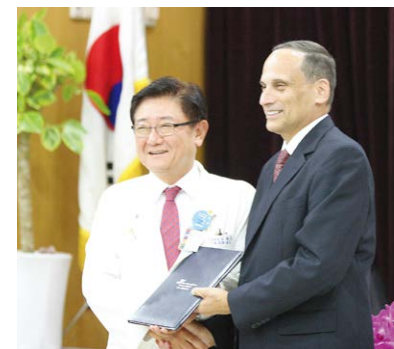
인하대병원은 선진화된 세계수준의 시스템을 배우고자 JCI인증에 도전하여 이번이 3번째 JCI인증 획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내 감염위험을 감소시키고자 시설과 환경 개선을 통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을 구분하고 감염예방 수칙을 꼼꼼히 수립하여 철저히 실천하기 위하여 직원들은 2차 인증 때보다 까다롭게 업무를 해야 했습니다. JCI인증을 통해 메르스도 뚫지 못했던, 오히려 치료병원의 역할까지 완벽히 해낸 인하대병원의 안전장치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세 번째 인증에서는 ‘더 강하고 견고한’ 의료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전 교직원의 희망이었습니다.

목표는 인증서가 아닌 환자안전문화와 윤리적 규범

우리의 반복 과정은 단지 JCI 인증서가 목표는 아닙니다. 병원의 환자안전문화와 윤리적 규범을 위해 경영진이 모범이 되고 안전가치에 대한 본보기가 되고자 함이고, 안전문화가 성숙된 기관만이 높은 수준의 진료와 안전사고 발생이 적다는 선진국의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체화(體化)할 좋은 기회입니다. 경영진 부터 시작하여 2,300여 교직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사결정은 ‘환자중심으로,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 수칙 지키는 작은 행위 하나마다 멈추지 않는 노력을 약속합니다!

직원들의 역량을 높여 시스템이 견고해지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안전을 위해 스스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실행하는 작은 행위 하나하나가 쌓여 1,200여 개의 안전 수칙을 지킴으로써, 환자분들과 인천 시민들을 위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설계하겠습니다. 건강 파트너로서 가장 신뢰받는 인하대병원이 되기 위한 혁신과 변화를 위한 멈추지 않는 노력을 오늘, 약속합니다.



나 하나, 바통을 놓치면 안 되는 릴레이였기에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어야 했다. 수험생 같은 고단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내일을 향해 바로 서야 하는 시간이었다. 한 문제마다 최선을 다하며 큰 시험을 잘 치러낸 인하대병원의 전 직원은 그랬다. 3차 인증을 마치고 ‘수고했다’는 서로의 한마디에 단단해질 우리 병원의 내일을 꿈꾼다.

JCI 3차 인증을 받은 우리 병원,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가장 안전한 병원, '그 이상'을 넘어라!

병원 내 미화 여사님부터 병원장님까지 한마음으로 움직였던 시간이었다.
세 번째라는 숫자의 의미보다 더 값진 것은 무엇일까?
JCI 조사위원의 평가를 들으며 알락 쏟아져 오는 그 뜨거운 벽찬 가슴을 기억하고 싶다.

참석자 김우철·신정애·조옥자·김완선·신은호·박근택·장진희
일시 2016년 7월 26일 장소 18층

기획 김옥주 차장 / 홍보팀 진행 정리 이정희 에디터 사진 송인혁 실장 / 다부스튜디오



3차 인증을 마치며...

완벽은 없다, 그러나 달려야 할 이유는 있다!

진행자 2010년 1차 JCI 인증을 시작으로 이번 3차까지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3차까지 달려 온 우리 인하대병원의 JCI 인증, 진정한 의미를 되짚어 볼까요?

김우철 실장 JCI 인증은 평소 누적된 데이터를 다 봅니다. 그러니까 순간만 넘겨서 끝나는 것은 아니죠. 마치 인증만 받으면 사고없이 100% 완벽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반복 인증 과정은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박근택 과장 저는 우리 병원의 청소하시는 분들의 대표로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건네면 '다음에 또 받아요?' 라고 물으세요. 좋은 것은 맞는데 그분들 처지에서 보면 굉장히 피곤하고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김완선 팀장 제 생각도 힘든 과정을 끝낸 직원들의 사기를 돋워주는 의미에서 부서별로 자축의 수박 한 통이라도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뭐 큰 거 아니고 초코파이라도 좋습니다(일동 박수와 웃음).

조옥자 리스크매니저 정말 모두 수고하신 거 같아요. 병동 가동률이 80%가 넘었고 환자가 많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만큼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 불평은 들리지 않았어요. 우리 병원 직원이 많이 성장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신은호 전공의 전공의들도 마찬가지로 의무기록 작성을 평소에 하고는 있는데 막상 조사위원 앞에 가면 왜 그렇게 부족한 것이 스스로 눈에 띄는지 자기변명 같은 대답을 할 땐 좀 안타까웠습니다.

장진희 간호사 가장 많이 준비하고 긴장하는 만큼 또 보람도 큰 부서야 간호부라고 생각합니다. 1차 때는 솔직히 단순히 외우기 바빴어요. 이번 3차 때는 지침이 바뀐 것을 서로 확인하고 합숙하며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JCI 인증, 시설·규모가 아닌 '환자 안전'이 평가 잣대

신정애 팀장 3차까지 인증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인적 자원은 빅 5 병원에게 절대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어요. 세계적으로 안전이 최고 이슈잖아요? 특히 병원의 안전은 최고이어야 하죠. 과거에는 훌륭한 의사 한 분의 주도로 병원이 운영되었다면 이제 정말 환자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병원의 길을 가르쳐준 셈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 병원의 존재가



JCI 인증서를 설명하는 김우철 실장

치, 환자의 안전과 질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김우철 실장 JCI 인증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인증을 거치면서 우리 병원 내에서 '감염과 환자 안전에 대한 인식도'가 향상되었어요. 시험일에 맞춰 전력 질주하는 우리의 노력, 평가받는 시험, 이런 시간이 있지 않으면 좀 느슨해지기 마련이죠.

신정애 팀장 이구동성으로 얘기할 만큼 그 어려운 과정을 꽤 땀은 점수로 인증받았다고 생각하면 전 지금도 벽칩니다. 1주기 때는 병원의 완벽한 지원 속에서 '무조건(?) 했습니다. 이번 3차 때는 1, 2차 인증의 틀을 완전히 깨고 새로운 기준이 들어오게 되었죠. 우리가 왜 스스로 선택했는가를 곰씹어 보면 좋은 병원을 만들어서 내가 그 병원에 속한 일원으로 자부심을 느낀다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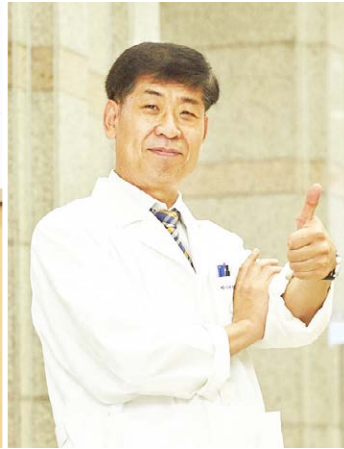
3년마다 까다로운 평가 JCI 인증이 가져다준 변화

장진희 간호사 간호사는 간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환자 보호자 검사실 등 다 연결해 주는 역할도 해야 해서 스트레스가 많긴 해요. 그런데 공통 지침이 있으니까 업무 의사소통도 잘 되고 있어서 역시 4차도 받아야 하지 않을까(일동 웃음)...

김완선 팀장 이번 3차 인증 때는 처음으로 의료기술직만 자체 TFT 팀을 구성했습니다. 본인이 쓴 글의 오타 발견은 남들이 잘 찾아주는 것처럼 저희는 교차 점검을 하면서 보완할 수 있었어요. 이때 구내식당도 점검 차 들었는데 조리실 안의 온도는 대단했어요. 매일 매일 음식 제공해 주시는 분들의 노고도 알게 되었습니다.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과 교수, 의료혁신실장



김완선 | 방사선종양학과 팀장



조옥자 | 리스크매니저



장진희 | 내과계 집중치료실 간호사



신정애 | 가치혁신팀 팀장



신은호 | 정형외과 전공의



박근택 | 시설팀 과장

신은호 전공의 작년엔 장모님 손가락 수술을 우리 과에서 해드렸어요. 학생 때 어느 교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 부모님이나 가족이 아프면 우리 병원에서 수술 치료하겠느냐? 너희가 잘해서 내 부모를 맡길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라.' 3차 인증까지 거치면서 그 정도의 병원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진행자 제 딸도 인하대병원 이비인후과에서 편도절제술을 했습니다. 당시 지인 3명이 함께 수술했는데 병원 정직원도 아닌 제가 신뢰가 없었다면 못했을 겁니다. 척추센터에도 몇 분 추천했는데 인하대병원 시스템을 조금 더 알고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신은호 전공의 척추센터면 저희 정형외과군요. 네이버에 JCI를 치면 연관검색어에 우리 병원이 제일 먼저 떠오. 일반인들에게 인식되어 가고 있기는 한데 JCI인증과 국내 인증을 함께 받은 병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고 확실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라는 홍보가 좀 더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조옥자 리스크매니저 1주기를 끝낸 2010년의 일로 기억되는데 요즘 한참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문제가 있었어요. 응급실로 아기가 왔는데 이 명 자국은 아동학대에 의한 것이라며 교수님이 직접 신고한 일이 3~4건 있었어요. 2차 JCI인증 이후는 병원 내 담배꽂초와 냄새가 거의 사라졌어요. 아동학대 건에 대한 적극적 신고나 화재, 금연에 대한 강조는 JCI인증 평가에서 중요하거든요.

김우철 실장 가슴기 사건으로 떠들썩했었잖아요. 신 팀장한테 들은 얘기인데 우리 병원은 JCI 1차 인증 때 감염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병원 내 가슴기를 모두 철수했다고 해요. 메르스도 마찬가지로 병원 내 감염과 안전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박근택 과장 음압 병동의 경우도 환자가 입원했을 때 사용부서가 체크를 했다면 이제는 사용자와 함께 시설팀에서도 별도 점검을 하고 캘리브레이션 기계까지 보정을 받고 있으니 안전점검은 점점 더



테일화 하는 거죠. 응급센터 공사도 병원안전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공사 안내문, 소음측정, 분진측정 등을 누구나 볼 수 있게 항상 게시해 놓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까지도 관리를 합니다. 안전이 한 차원 높아지는 병원이 되는 것이지요.

갈등, 실망, 좌절을 극복해야 하는 이유, 생명을 다루는 '우리'

김우철 실장 JCI는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어요. 손님 맞이하려면 준비는 좀 해야겠죠. 지금을 잘 유지하면 4차 때는 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직원의 '평상시 모습'을 더 칭찬해주고 싶어요. 1년 전 환자까지도 리뷰하는 전체적 평가여서 절대 버락치기 할 수 없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힘들게 고생했던 직원들은 뜨거운 게 '썩'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 신 팀장이 울었어요(일동 웃음).

신정애 팀장 3차를 준비하면서 병원이 추진하는 정책과 인증의 새로운 기준과 시스템이 잘 맞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장기이식서비스였는데 JCI인증 기준에 따라 아주 수월하게 안전진료시스템으로 셋팅 할 수 있었죠.

김완선 팀장 이제는 국제인증 등에 필요한 안전 교육 등을 포함하면 좋겠습니다. 신입직원들이 서비스 교육도 필요하지만, 안전교육도 중요합니다. 신입생 OT 등의 커리큘럼에 넣으면 좋겠습니다.

장진희 간호사 형식적인 얘기지만 피할 수 없다면 불평하지 말고 하자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거 해서 이런 게 좋아졌잖아? 처음엔 이런 것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적어도 이런 거 안 하잖아' 등 실제로 이런 얘기를 나누며 준비했어요. 1,2차 때는 나만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심했는데 이번엔 의가 상하지 않고 잘 해왔어요. 서로에게 고생 많았다며 다독이고 팀워크가 오�히려 좋아진 시간이었어요.

조옥자 리스크매니저 저는 전담자 입장으로는 처음인데 임상위험평가를 했느냐는 질문이 많았어요. 환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임상위험평가를 통한 안전절차 수립이 필요한 거죠.

신은호 전공의 동기 한 명이 인천 내 다른 꽤 큰 병원에서 경험한 건데요, 응급실 환자를 보는데 환자 손목에 팔찌가 없다는 거예요. 속으로 이리다 다른 부위를 수술하겠구나 싶어 1주일 만에 그만둔 일이 있습니다. 적당한 강제성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김우철 실장 그게 바로 반복교육의 효과일 겁니다. 어느새 우리 병원에서 받은 JCI인증 과정이 본인도 모르게 스며든 거죠. 환자 안전이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정애 팀장 병원장님도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답을 못하면 지적사항이 돼요. 그러니까 병원장님부터 청소 여사님 한 분까지 우리가 만들어놓은 지침과 절차, 수행을 다 해주어야 하잖아요. 이것을 인하대병원이 해냈다는 이런 것들이 감동적이잖아요(눈물).

김옥주 차장 저 역시 1차 때는 리스크 매니저로 참여했었는데 3차는 밖에서 지켜보는 입장이었어요. 이렇게 조용해도 괜찮은 거야? 하며 많이 불안하기도 했어요. 괜한 걱정이었고 여러분은 백조였던 겁니다. 조용하지만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는 것이었고 '우리는 3차까지 오는 동안 습관화된 것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은호 선생님께서 확실하고 안전한 시스템의 우리 병원을 알리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자리가 분명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 병원보는 인천지역 전 개원가에 배부되고 있으니까요.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일동 박수).

'바통 터치를 하는 릴레이 게임이다', '진행형이다', '힘들어도 가야 하는 마라톤이다', '까도까도 나오는 양파'다. 또 그렇게 까면서 눈물을 흘리는...

좌담회에 참석자들이 JCI인증을 한 줄로 표현한 것이다. 환자의 안전과 정확한 진료지침을 위해 혼자 할 수도 없고, 다 함께 꼭 해야만 하는 과정이다. 우리 병원이, 우리 생명이 존재하는 그 날까지 가야 하는 여정인 셈이다.



3차 JCI인증 위해 우리는... 한 가지 목표로 모두가 '쉽' 없어야 하는 길

JCI인증은 3년마다 환경변화와 의료계의 대내외적 발전 속도, 환자의 요구 등을 반영한 평가항목을 개정하여 적용합니다. 인하대병원은 질 향상과 환자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0년 1차 JCI인증부터 이번 3차까지 7번째 JCI 인증기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_ 신정에 팀장 / 가치혁신팀 사진_ 손보광 / 홍보팀

JCI인증, 의료사고 예방 위한 안전시스템 구축이 목적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인증(이하 JCI인증)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엄격한 국제 표준의료서비스 심사를 거친 의료기관에게 발급되는 인증입니다.

JCI인증은 환자 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환자가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퇴원까지 치료의 전 과정 16개 분야, 1200여 개의 기준에 대해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고민하고 정책과 절차를 만들어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을 JCI 본부에서 파견된 평가위원들의 현장조사를 통해 평가받는 것입니다.

3차 JCI인증, Academic Medical Center(AMC) Hospital

프로그램 적용

이번 3차 JCI인증은 국제환자안전목표가 포함된 환자안전, 병원조직원관리, 의학전문교육 기준이 포함된 Academic Medical Center(A

MC) Hospital 프로그램인 JCI인증 기준(5번째 개정)을 적용하여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 안전문화와 윤리체계, 물품 공급망(Supply Chain) 추적관리, 환자흐름절차 관리 등이 신규 또는 강화된 기준입니다. 또한 글로벌한 응급 감염병 증가 대비를 위한 공기매개 감염병 관리, 의사소통 기준, 약물관리 기준 환자상태 변화에 즉각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류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및 역량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염예방 위한 것이라면 빈틈없이 찾아 관리하라!

인하대병원에서는 이러한 JCI 기준에 걸맞는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환자 감염예방절차를 아주 세세한 곳까지 찾아내고 관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메르스 사태를 다시 겪지 않게 하려고 해외여행력이 있거나 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응급실과 외래, 입원환

자 전체를 대상으로 상시 스크리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면회객뿐만 아니라 제약회사, 납품 직원 등 본원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이 방문증을 받아 병원을 출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여 직원들은 각종 개인보호구 착용의 실습, N95 마스크 피팅 테스트 등을 시행하였고 다양한 직종을 대상으로 손 위생을 얼마나 철저히 하고 있는지 손(균)배양 행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피드백 함으로써 전 직원의 올바른 손 위생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멸균청결상태를 검증하기 위해 주사 약품을 준비하는 간호사 카트와 트레이, 멸균기구에 대한 균 배양 검사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느 곳에서도 균이 검출되지 않아 감염 위험 없이 안전한 장소에서 투약 준비가 되고 있음을 검증하여 환자들이 신뢰하고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듯 인하대병원은 병원 어느 곳, 어느 직종에서든지 빈틈없는 감염관리가 수행되도록 관리 감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환자안전에 위한 인천지역 최초의

신속대응팀 INHART & 상급심폐소생술 훈련소

인하대병원은 국제 수준의 진료 환경 및 환자안전에 위해 꼭 필요한 시스템인 신속대응팀 INHART(Inha Rapid Response Team)를 인천지역 최초로 구성하였습니다. INHART팀이란 입원 및 외래환자가 치명적인 상태에 빠지기 전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 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환자상태변화 조기대응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미 IHI(Institute for Health Improvement)에서 2006년에 시행한 '5백만 생명 구하기 캠페인'을 시작으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많은 병원들에서 적용되고 있는 조기대응 시스템입니다.

이와 함께 인천지역에서는 유일한 상급심폐소생술 훈련소(KALS TS: Korean Advanced Life Support Training Site)를 개소하여 의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자안전문화란 전 직원이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환자안전문화란 의료전달 과정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의 믿음, 가치 지속된 담구를 바탕으로 한 개인적, 조직적 행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안전을 위한 지침과 절차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직원이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영진이 직접 환자안전 라운딩을 시행하여 현장에서 환자안전의 개선이 필요한 이슈와 시설 등을 직접 관찰하고 직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등의 활동은 환자안전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임원진 Safety Rounding



환자참여 Speak Up 홍보활동



질 향상과 환자안전 '쉽' 없이 가야 하는 길

이번 3차 JCI인증은 상향된 JCI인증 기준 5판에서 요구되는 '질 향상과 환자안전'에 대한 국제 수준의 기준과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평가를 잘 수행해 낸 인하대병원은 더욱 더 안전한 의료기관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 직원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모든 환자가 인하대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아 아픈 몸의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의미의 행복한 환자 경험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신뢰받는 글로벌 스탠다드 병원으로 우뚝 선 인하대병원은 앞으로도 '병원전체 시스템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이라는 한 가지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전 직원 모두가 '쉽' 없이 가야 하는 길임을 항상 기억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인하대병원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은 항상 진행형입니다.



가장 작지만 가장 용감한 아이들, 이른둥이들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축복과 기쁨이 넘쳐나야 할 순간에 이른둥이를 출산한 부모들은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급작스런 출산과 자신의 아기가 미숙하게 태어난 사실에 대해 많은 걱정과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신생아학의 발전으로 대부분의 이른둥이는 어른들의 걱정과 달리 건강하게 자라나 큰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용감한 아이들, 이른둥이를 소개할까 합니다.

글_ 이주영 교수 / 소아청소년과

이른둥이란 무엇이고 국내외 현황은 어떤가요?

임신 기간 37주 미만 또는 최종 월경일로부터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기를 미숙아(premature infant) 또는 조산아(preterm infant)라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출생 시 몸무게가 2.5kg 미만인 저체중 출생아(low birth weight infant)를 포함해 미숙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른둥이’란 ‘미숙아’의 새 한글 이름으로 ‘세상에 빠른 출발을 한 아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3년 전 국내에서 미숙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미숙아’란 말 대신 시민의 참여로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습니다.

매년 전 세계 약 1,500만 명의 아기가 조산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전 세계 총 출산의 11.1% 정도이며, 지난 20년간 출생 통계가 확인된 65개국 중 62개국에서 조산율이 증가한 것을 비롯해, 거의 모든 국가에서 조산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 출생 통계에 따르면 총 출생아 수가 1993년에 715,826명에서 2011년 총 출생아 471,265명으로 18년간 약 34%나 감소하여 심각한 저출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그림 1). 그러나 이에 비해 출생 체중 2.5kg 이하의 저출생 체중아 수는

1993년에 18,532명으로 총 출생아의 2.6%였던 것에 비해 2011년에는 24,647명으로 총 출생아 중 5.2%로 그 비율이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그림 2). 이 중에서도 출생체중 1.5kg 이하의 극소저체중 출생아(very low birth weight infant)는 1993년 929명, 2011년도 현재 2,935명으로 수적으로는 216%가 증가했고, 전체 총 출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13%에서 0.62%로 477%의 폭발적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그림 2). 이와 같은 저체중 출생아 및 미숙아의 증가는 전체적인 저출산에 따른 산모의 노령화 및 불임의 증가, 또 이에 따른 인공임신술의 증가에 따른 조산, 다태아의 증가가 그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그림 3).

우리나라보다 일찍부터 저출산과 노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은 2006년도에 이미 저체중 출생아 빈도가 10%에 달했고, 미국에서는 총 출생아 당 미숙아 비율이 2000년도 이미 11.6%에 달하는 등 국외 선진국에서의 저체중 출생아 및 미숙아의 증가 상황을 볼 때 앞으로 우리나라의 저체중 출생아 및 미숙아 출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림 1 우리나라 총 출생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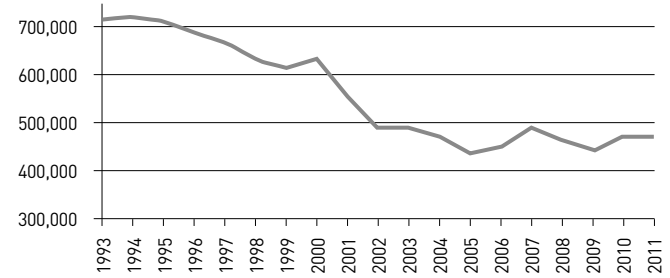


그림 2 우리나라 총 출생 중 저체중 출생아 및 극소저체중 출생아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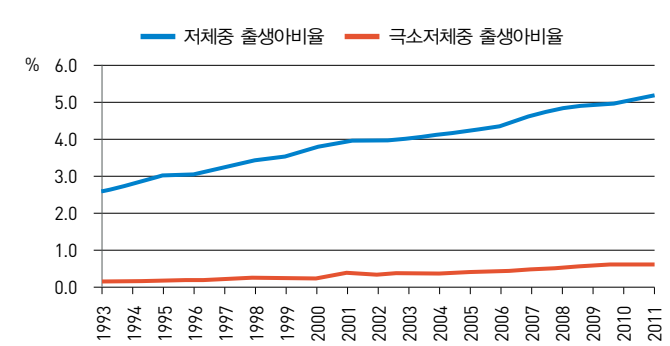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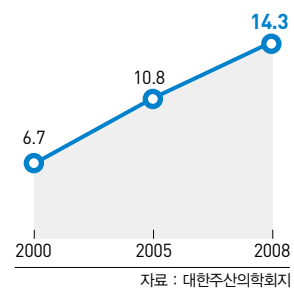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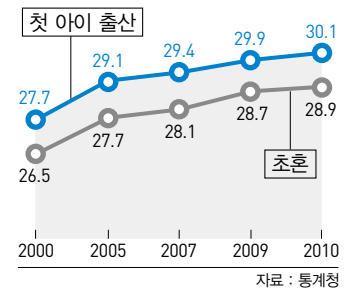


그림 3 우리나라 고령산모 비율과 노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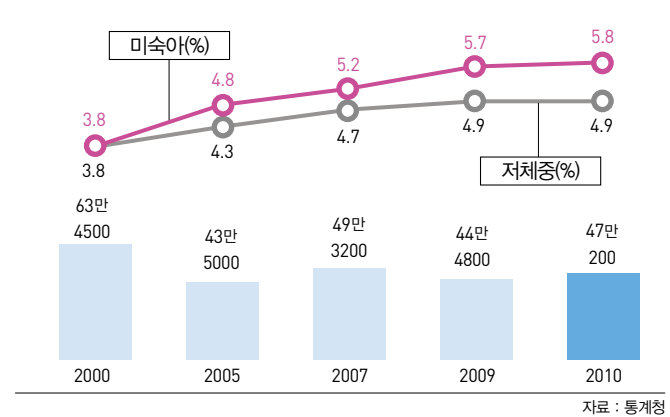
전체 산모 중 35세 이상 고령산모 비율(단위: %)



여성 초혼, 첫아이 출산 평균 연령(단위: 세)



신생아 수와 미숙아·저체중 비율(임신 37주, 2.5kg 미만)



이른둥이는 어떤 점이 만삭아보다 불리할까요?

태아는 임신기간 동안 각각의 주수에 맞추어 엄마의 자궁 속에서 적절한 환경과 보호를 받고 필요한 영양을 공급 받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이른둥이의 경우 임신후기의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태어나게 되어 아직 바깥 환경에 완전히 적응할 준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여서 만삭아보다 여러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 중 몇몇을 꼽아 보자면 이른둥이는 체온조절 기능이 덜 발달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큰 체표면적, 피하지방 부족 및 영양부족 등으로 인해 저체온증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발한기능이 미숙하여 외부온도가 높으면 고체온증이 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늑골이 연하고 호흡을 담당하는 근육의 힘이 약해 호흡하는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이 일어나는 폐포를 잘 퍼지도록 해주는 표면활성제의 부족으로 호흡곤란중후군이라는 이른둥이의 대표적 호흡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계호흡보조와 산소 및 표면활성제 투여가 필요합니다. 엄마 뱃속에서는 호흡을 거의 하지 않는 나이이므로 무호흡도 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태아의 상태에서는 꼭 필요하지만 출생 후에는 막혀야 되는 혈관인 동맥관이 늦게 닫히는 경우가 많아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뇌실 내 또는 두개 내 출혈은 미숙아에서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합병증 중 하나로 이 또한 재태 연령이 어릴수록, 출생 체중이 적을수록 그 빈도가 증가합니다.

만삭아의 경우 당연하게 보이는 경구 수유의 과정 또한 강하게 빠는 힘과 수유에 관계되는 여러 입안 근육들의 조화와 반사작용이 완성되는 약 임신 나이 34주가 지나야 가능합니다. 그때까지는 튜브를 통한 수유가 필요하며 종종 복부팽만을 보이고 수유진행이 힘든 경우가 있어 서서히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부족한 양은 수액이나 정맥영양액을 통해 영양 보충을 하게 됩니다. 일부 이른둥이에서는 장점막 및 전층의 괴사를 보이는 괴사성 장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유 진행 및 소화 상태를 면밀하게 확인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금식 및 항생제 치료, 나아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른둥이에서는 망막혈관도 미숙하여 특히 호흡곤란으로 산소치료가 필요했던 경우 미숙아망막증이 발생하지 않는지 정기적인 망막검사가 필요하고 청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만삭아에 비해 많이 청력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Neonatal Intensive Care Unit)에서는

어떤 보살핌을 받나요?

이른둥이가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입원하게 되면, 부모들은 자신들과 격리되어 여러 기계와 모니터에 둘러싸인 아기 모습에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이른둥이는 엄마의 자궁 속에서 신체기관이 100% 발달하지 못한 상태로 세상에 나오기 때문에 기초적인 호흡부터 체온 유지, 영양분 섭취를 스스로 하는 힘 등 모든 신체 기능이 매우 약합니다. 또한, 선천적, 후천적 질병으로 전문가의 24시간 집중 치료와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른둥이들을 위해 마련된 곳이 바로 '신생아 집중 치료실' 또는 '신생아 중환자실'입니다. 이른둥이들은 이곳에서 인공의 시간을 보내며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신생아 집중 치료실 내에서는 혈압이나 맥박, 호흡, 산소포화도 등을 24시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주사를 통해 영양을 공급하는 동시에 관을 통해 음식물을 투여하게 되고, 호흡관이나 무호흡이 있을 때는 기계호흡기 치료나 산소공급을 하며, 체온조절을 위해 인큐베이터 내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신생아 집중 치료실 하면 떠올리는 기계의 하나가 인큐베이터 즉, 보육기일 것입니다. 보육기는 체온조절과 피부의 미성숙으로 수분 손실이 많은 미숙아들을 위해 따뜻한 대기환경과 표준 습도를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른둥이는 스스로 체온유지가 가능한 대략 임신 35주나 체중 1.9kg 내외까지 보육기내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 외에 빈혈, 전해질, 호르몬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시행하며, 여러 질환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엑스레이, 심장초음파, 뇌초음파, 복부초음파 등 영상 검사를 시행합니다. 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각 전문가와의 협진을 통해 치료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소아청소년과 신생아전문의 혼자 힘으로 앞에 언급한 이른둥이의 질병들을 모두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들에게는 소아심장분과, 소아신경분과, 소아내분비분과, 소아영상의학과,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신경외과, 소아이비인후과, 소아피부과, 소아비뇨기과, 소아정형외과, 소아재활의학과, 소아영양사, 소아약사, 사회복지사, 신생아 전문 간호팀의 통합적인 진료와 세심한 케어가 필요합니다.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 보살핌을 받는 동안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1) 모유는 만삭아가 최적으로 성장하고 발육하기 위한 중요한 영

양공급원이지만, 이른둥이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감염 예방 및 면역력 도모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임신 마지막 3개월 동안 면역 글로블린이라고 하는 다량의 면역 단백질 분자가 태반으로 이동해 성장하는 태아에게 축적되고, 출생 후 최대 5~6개월 동안 신생아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그러나 이른둥이는 이러한 면역 글로블린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이른 시기에 태어나게 되어 면역보호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모유를 통해 면역 글로블린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출산 후 처음 며칠 동안의 초유에는 고농도의 면역 글로블린이 함유되어 있어서 면역력을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른둥이를 출산한 산모들의 초유에는 만삭아를 출산한 산모들의 초유보다 면역성분, 칼슘, 인, 마그네슘, 아연, 나트륨, 염화물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모유를 짜서 냉동 보관하면 한 달까지도 보관이 가능하므로 이른둥이를 둔 산모의 경우에도, 열심히 모유를 유축하여 모유량을 늘려 나중을 대비해야 합니다. 잦은 유축 횟수가 모유량을 충분히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되므로, 아기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노력해주시면 그만큼 우리 이른둥이들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2) 모유는 면역학적으로 이른둥이들에게 매우 중요하나 이상적인 성장을 위한 칼로리를 공급해줄 단백질과 나트륨, 칼슘, 인 등의 무기질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성분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모유강화제이며, 모유와 함께 섞여서 먹일 수 있도록 미리 구입하여 준비해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이른둥이들은 비타민 D와 철분, 아연, 비타민 A, 비타민 B6 등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추가 영양보충제를 담당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구입해주시면 이른둥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이른둥이의 부모들은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 마주치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들과 많은 양의 정보, 아기와의 격리가 주는 고독감, 아기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 등으로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일기 쓰기와 나만의 시간 갖기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부모가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아야, 이른둥이들도 모든 어려움을 씩씩하게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 매일매일 듣게 되는 정보들을 기록하고, 본인의 감정과 생각 또한 일기로 적어보면,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의 오랜 기간이 훗날 아기와 함께한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른둥



이의 부모들은 퇴원 이후 만삭아보다 더 자주 외래에 와야 하고, 여러가지 약물을 챙기고 발달을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아기가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있는 동안이라도 자신만의 재충전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언제 퇴원할 수 있고 퇴원 후 만삭아와 다른점이 있나요?

이른둥이의 퇴원은 아기와 보호자가 집에서 잘 지낼 수 있는지를 의료진의 판단한 후 결정하게 됩니다. 다른 의학적 문제가 없는 경우 보통 체중이 2kg 이상 증가하고 스스로 체온조절이 가능하며 충분한 수유로 하루 15~20g 이상의 체중증가가 꾸준할 때 보호자가 아기에 대해 적응하는 시간을 가진 뒤 퇴원하게 됩니다. 퇴원 전 이른둥이들은 망막검사, 청각검사, 대사이상 검사, 뇌초음파 검사나 필요한 경우 뇌MRI를 시행하여 퇴원 이후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모든 아기들에게 마찬가지로 중요하겠지만, 특히 이른둥이의 경우 지속적인 성장과 발달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대개 생후 1세~2세 사이에 따라잡기 성장으로 만삭아로 출생한 아기와 같은 정도의 성장을 보이거나 이에 못 미치는 성장부진 시 원인을 찾아 교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른둥이의 발달과정은 교정연령, 즉 분만예정일부터의 나이를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 달 먼저 출생한 아기의 경우 발달과정이 만삭아로 출생한 또래 아이들보다 한 달 정도 늦게 발달이 이루어지며 아기의 교정연령에 합당한 발달을 보이는 지가 중요합니다. 여러 심한 질병을 겪은 일부의 이른둥이들은 정신지체, 자폐증, 뇌성마비 등의 정신적·신경학적 발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외에 사회적·행동 발달 장애, 언어 발달 장애, 시력, 청력 등

의 장애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정기적인 외래 방문을 통해 면밀한 추적 관찰을 해야 하고 의심이 되는 경우 소아재활의학과, 소아정신과, 소아안과, 소아이비인후과 의료진과의 협진을 통해 시기적절한 중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방접종은 B형 간염과 생백신을 제외하고 대개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됩니다. 그러나 불안정한 전신상태로 인해 접종이 지연되는 경우가 흔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접종이 지연된 경우에는 접종 스케줄이 혼동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만삭아들의 스케줄과 맞게 될 때까지는 퇴원한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른둥이는 미숙한 폐에 호흡기 감염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대상이 되는 경우(임신 32주 미만으로 태어난 이른둥이나 기관지폐이형성증으로 진단된 경우) RS 바이러스 예방주사를 추가하여 맞아야 합니다.

아직 덜 성숙한 아기의 몸으로 태어난 이른둥이는 만삭아에 비해 많은 불리한 점이 있지만 최근 신생아학의 발전과 각 전문 파트의 도움으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 입원한 대부분의 이른둥이들이 의료진의 극진한 돌봄과 부모의 관심으로 어려움을 용감하게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고 있습니다. 이른둥이들은 여러 의료진과 부모의 긴밀한 협조와 사랑 아래 만삭아보다 더 건강한 아이로 자라나 큰 기쁨을 안겨줄 것이며, 장차 사회의 커다란 구성원의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문의 | 인하대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보건복지부 지정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032-890-2183~4

| 참고문헌 |

1. 국민건강정보포털(<http://health.mw.go.kr>)
2. 이른둥이희망찾기 캠페인 홈페이지(<http://www.preemielove.or.kr>)
3.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http://www.snuh.org/child/inlomed/sub01/sub01/scdise.jsp?idx=13>)
4. 대한의사협회(https://www.kma.org/contents/mom_and_baby/mom_and_baby38.html)
5. 엄마넷 최고(<http://www.mom-baby.org/help/information/info09.asp>)
6. The Preemie-L(<http://www.preemie-t.org/blaq.html>)
7. Baby first(<http://babyfirst.com/en/parents-corner/promoting-development.php>)
8. 최영률. (미숙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관리). 대한의사협회지, 749p
9. 장윤실. (미숙아의 영양관리). 한양메디컬리뷰, 31호, 250p
10. 김미정. (모유수유의 영양과 수유모의 영양관리). 한양메디컬리뷰, 30호, 36~37p
11. 김애란. (미숙아로 태어난 영아의 외래진료). 대한의사협회 의학강좌, 1094p
12. 신순문. (이른둥이 튼튼하게 키우기). 현문사 2010.
13. Blencowe H., Cousens S. et al. National, regional, and worldwide estimates of preterm birth rates in the year 2010 with time trends since 1990 for selected countries: a systematic analysis and implications, 2012. The Lancet, Vol 379, 1262-1272
14. Hodek J., Matthias J., Millendorf T. Measuring economic consequences of preterm birth - Methodological recommendations for the evaluation of personal burden on children and their caregivers, 2011. Health Economics Review 1:6.

우주관광시대, 인하대병원이 이끌어 갑니다!

미래 우주관광 시대에는 남녀노소, 건강한 사람과 환자를 막론하고 우주여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인체의 변화를 연구하는, 이른바 '항공우주의학'이 새롭게 유망 학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글_ 김영호 교수 / 이비인후과



신체적 문제로 우주여행을 할 수 없다면 슬픈 일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우주여행을 하는 상상, 달나라에 가서 정 말 옥토끼가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 어렸을 때 누구나 한번쯤 해보셨을 듯합니다. 최근 신문 기사들을 보면, 이러한 우주여행이 가까운 미래에 실제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상업 우주여행 회사들이 앞다투어 우주관광 로켓을 쏘아 올리고, 유럽에서는 2030년에 달 표면에 건물을 짓겠다고 하고... 우주관광 시대가 우리 앞에 어느덧 성큼 다가온 듯합니다. 현재는 우주여행 비용이 2억 정도라고 하는데, 20여 년 후에는 좀더 저렴(?)해져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우주관광 시대에, 여유만 있다면 누구나 우주여행 한번쯤 가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신체적 문제 때문에 우주여행을 할 수 없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또 있을까요? 실제로 우주 공간은 급격한 중력 및 압력 변화, 우주 방사선과 같은 여러 가지 유해 자극이 있기 때문에, 인체에 다양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젊고 신체가 아주 건강한 사람들만 우주인으로 선발되는 것이지요.

안전한 우주여행을 도와주는 '항공우주의학'

'항공우주의학' 이라고 하니 잘 실감이 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알기 쉬운 예를 들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라식 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에, 무중력 상태에 노출되면 안압이 크게 증가하여 심한 통증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우주비행사에게서도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는 '아이라식'이라는 수술법이 개발되었습니다. 우주여행 전에는 충치 치료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충치를 치료하고 남은 결손 부위를 금 이외의 재료로 충전하게 되면 우주 공간에서 재료가 팽창하여 심한 치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금을 이용하여 치아 결손 부위를 치료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항공우주의학은, 각종 질환을 가진 환자가 안전하게 우주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 임상 의사 주축 '우주항공의생명과학연구소'

인하대병원엔 국내 최초로 임상 의사들이 주축이 되어 '우주항공의생명과학연구소'를 설립하고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급격한 중력 및 압력의 변화에 따른 면역계, 근육격계 및 전정계(평형감각)의 변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구 위에서 우주 환경을 연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희 인하대병원이, 우주 환경을 유사하게 재현할

수 있는 각종 장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 환경이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중력'이겠지요. 중력의 변화 중에서도, 우주선을 타고 지구 중력을 돌파할 때의 급격한 '고중력' 및 우주 공간에서 모든 물체가 허공에 둥둥 떠다니는 '미세중력(무중력이라고 많이 표현하지만 '미세중력'이 정확한 표현입니다)'이 특히 중요합니다. 우선 고중력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실험동물을 고속으로 회전시켜 원심력에 의해 중력을 높이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인하대병원 우주항공의생명과학연구소에서는 원심력에 의해 지구 중력의 15배 정도의 고중력을 실험동물에 가할 수 있는 연구장비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장비는 국내 최고 수준임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장비라 자부할 수 있습니다(그림 1).

청정 동물 실험실 환경에서 미세 중력 실험

미세중력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기법이 요구됩니다. 사실 지구에 있는 어떤 물체도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물론 높은 곳에서 '자유낙하' 하는 물체 내부에서는 순간적으로 미세중력 상태가 되지만, 몇십 초 내외의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는 변화를 연구하기란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의 미세중력은 아니지만 미세중력을 '흉내낼' 수 있는 장비를 지상에서 개발하였습니다. 실험 방법은 다소 간단해 보이는데요, 실험동물의 꼬리를 매달아 뒷다리를 땅에 닿지 않게 하고, 앞다리만 땅에 닿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험동물의 혈액이나 체액이 몸의 중심부로 쏠리게 되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뒷다리는 근육위축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현상이 실제 우주 공간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구상에서 우주 연구를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하대병원 우주항공의생명과학연구소는 청정 동물실험실 환경에서 미세중력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미세중력 동물모델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그림 2).

'중력치료실', 멀지 않은 이야기?

최근의 연구 결과 중 흥미로운 것을 소개드릴까 합니다. 저희 인하대병원 이비인후과 연구팀(인하 항공우주의학 연구팀, Inha Space Medicine Lab)은 실험동물(쥐)에서 4주간 알레르기 유발하는 '난 알부민(ovalbumin)' 이라고 하는 물질을 복강 내로 주사하고, 코에 투여하여 알레르기 천식 및 비염이 유발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4주간 천식 및 비염을 유발하는 동안, 지구 중력의 5배에 해당하



그림 1 실험동물이 들어 있는 사육용 케이지를 고속으로 회전시켜, 실험동물을 고중력에 노출시킬 수 있는 고중력 연구장비.



그림 2 실험동물의 꼬리를 매달아, 뒷다리를 땅에 닿지 않게 하고, 앞다리만 땅에 닿게 하는 '하지현수기법(hindlimb unloading)'을 이용한 미세중력 연구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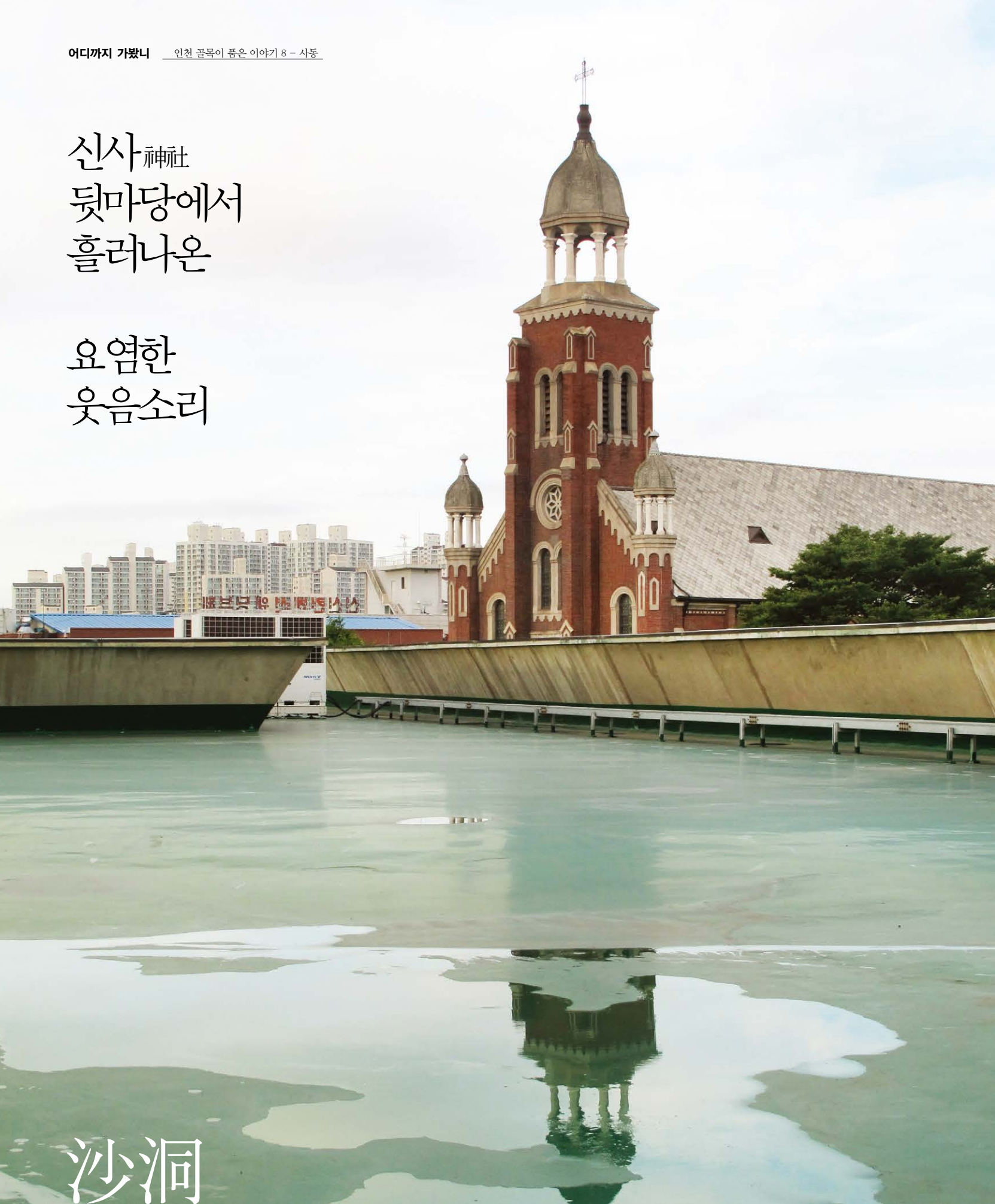
는 고중력 환경 하에서 4주간 생활하도록 하였습니다. 처음에 저희 연구팀은, 고중력과 관련한 스트레스 때문에 천식과 비염이 악화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험 후 놀랍게도, 고중력에서 4주간 실험한 쥐들은 그렇지 않은 쥐들에 비해 오히려 천식 및 비염이 개선되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결과가 왜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험동물의 폐 조직을 가지고 유전자 발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산화 작용과 관련한 유전자가, 고중력에 노출된 동물에서 현저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정도의 고중력은 오히려 면역계 질환에 대해 보호 효과를 갖는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밝혀낸 셈이지요.

이러한 연구 결과 이외에도, 저희 인하대병원 연구팀은 고중력 및 미세중력에 대한 많은 연구를 국내 여러 연구팀과 협력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지속하다 보면 인젠기는 우주여행을 위한 신체검사를 저희 인하대병원에서 수행한다든지, 혹은 병원 내에서 각종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중력치료실'과 같은 치료 센터를 운영하는 날도 멀지 않을 듯합니다. 우주관광시대를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인하대병원의 모습을 기대해 주세요!

신사 神社
뒷마당에서
흘러나온

요염한
웃음소리



沙洞

사도석우(沙島夕雨). '사도에 내리는 저녁 비'는 인천 팔경(八景) 중 하나였다. 여전히 바다에 비가 내리지만 이제 그 빗물을 받아 줄 사도는 없다. 모래섬 사도는 항구가 만들어지면서 지도에서 지워졌다. 사도는 영원히 사라졌지만 '사동'이란 지명을 남겼다. 이 동네는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정신적 숭배 공간인 신사(神社)와 육체적인 욕정을 발산한 요정(料亭)이 공존하던 기묘한 곳이었다.

글·사진 유동현 / 인천시 '굿모닝 인천' 편집장, '골목, 살아지다' 저자

일제 황국 신민화 정책의 대표적 상징이었던 인천신사(仁川神社)

현재의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자리에는 인천신사(仁川神社)가 있었다. 학교 남쪽은 바로 앞까지 바닷물이 넘실거리는 낭떠러지였다. 일본인들은 그곳에 1890년 6월 신사를 건립했다. 지대가 높으며 시가지에서 떨어진 한적한 곳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맞아 떨어진 것이다. '신사'는 일제의 황국 신민화 정책의 대표적 상징이었다. 우리는 흔히 '신사참배'라는 말을 통해 이 땅에 신사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다.

'인천부사'에 따르면 당시 인천에 살고 있던 일본인들은 인천에 신사가 없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여겼다. 그래서 1889년부터 신사 창설의 뜻을 품고 기부금을 모아 신사 건립에 나섰다. 당시 인천에 거주하던 일본인 수는 1,600여 명. 신사는 이미 1910년 병탄 이전에 인천을 비롯해 국내 곳곳에 세워졌다. 대신궁 건축 공사가 낙성되면서 면모를 갖춘 인천신사는 이후 지속적인 증축 공사를 하며 규모를 넓혔다. 지금도 교정 주위에 쉽게 볼 수 있는 축대와 울타리 공사는 1919년부터 이후 3년 여에 걸쳐 축조한 것이다.

광복이 되자 신사는 조선인들 분노의 첫 타깃이 되었다. 그날 저녁으로 조선인들의 손에 제일 먼저 파괴당한 곳이 각처의 신사였다. 실제로 8월 15일 저녁 평양신사를 비롯한 전국 신사에 대한 방화와 파괴가 시작됐다. 인천신사도 같은 운명이었다. 일본인들은 신령이 깃든 신체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느라 전전긍긍했다.

인천신사에는 탁구공 크기의 검은 색 옥사리(玉砂利) 신체가 있었다. 8월 17일 오후 4시 인천신사의 공사들과 인천부윤, 부두관리국장이 입회한 가운데 인천항 앞바다 한가운데에 그 신체를 가라앉혔다.

광복과 동시에 신사가 모두 파괴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지금도 인천 여상 정문에 들어서면 석축과 석조 난간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교정에 곳곳에서 당시의 석주, 석담을 만날 수 있다. 학교 아래 동네에는 커다란 방공호가 그대로 남아 있다. 유사시 공사나 승려들 그리고 참배객들이 급히 피신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지금도 가정집 마당 한편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여전히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신사를 치받고 있는 거대한 암석을 뚫어 만든 방공호



인천신사(仁川神社)



‘묘각사(妙覺寺)와 인천 최고의 요정 ‘수명루’

신사 주변에는 일본인들이 종교 활동을 한 흔적이 남아 있다. 현 송도중학교에는 ‘묘각사(妙覺寺)가 있었다. 인천여상과 송도중학교 뒤편 사잇길에는 일본식 주택들이 많이 눈에 띈다. 한 가정집 바로 앞에서 일본식 돌기둥과 계단을 볼 수 있다. 이 계단은 지금은 학교 담으로 막혀 있지만 예전에는 이 길이 사찰로 들어가는 입구임을 알 수 있다. 두 개의 돌기둥에는 절의 종파와 이름을 알리는 ‘일연종 묘각사(日蓮宗妙覺寺)와 부산에 이은 두 번째 포교지라는 의미의 ‘서점제이도장(西漸第二道場)’이란 글씨가 써 있다. 묘각사 외에 인근에는 동본원사, 서본원사, 명조사, 편조사 등 일본 불교 사찰이 많이 있었다.

이 동네에는 신사와 사찰만 있던 게 아니다. 일본인들에게 ‘신성(神聖)은 ‘신성(身性)과도 통하는 모양이다. 인천신사 건립에 맞춰 수명루와 명월루라는 고급 요정이 한 부지 안에 개업하였다. 일반적으로 신의 위패를 모신 곳은 성스러운 지역이라 변경 몇 미터 안에는 유흥시설을 들일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상식인데 인천신사의 경우 그 경내라 할 수 있는 곳에 술과 몸을 파는 요정이 들어섰던 것이다.

특히 수명루는 ‘제일루’라 불릴 정도로 인천 최고의 요정이었다. 맛있는 술과 음식, 아름다운 여자들 그리고 청아한 정자와 눈부신 전망을 자랑했다. 당시 시인이자 조선신보사 기자였던 아오야마 고헤이는 “재물포의 빼어난 풍경은 일본공원(동공원)에 있고, 일본공원의 기묘함은 수명루에 모여 있다”고 수명루에 대한 감상을 표현했다. 수명루는 청일전쟁이 끝난 후 팔판루(八阪樓)로 이름을 바꾸어 영업을 계속했다. 사람들은 이를 흔히 ‘팔팔로’라고 불렀다. 초대 조선통감이었던 이토오 히로부미(이등박문)도 이곳에 애착이 있었고 인천에 올 때마다 즐겨 찾았다고 한다. 광복 후 적산이 된 요정은 전제민(戰災民)을 위한 주거지로 개방하라는 요구를 받기도 했으나 한동안 미군 방첩대 사무소로 사용했다. 후에 인천여상이 들어서면서 신사와 함께 완전히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



옛 묘각사 입구의 돌기둥과 크고 작은 요정들이 있었던 인천신사 부근 마을 입구골목

마치 일본에 온듯... 일본식 주택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사동



긴담모퉁이길 중간 좁은 철문으로 굳게 닫힌 굴



슬픈 사연을 지닌 ‘긴담모퉁이길’

경동 싸리재에서 기독교병원을 지나 신흥동으로 넘어가는 길에 긴담모퉁이길이 있다. 이름 그대로 돌담이 길게 놓여진 길로 애초에는 꼬불꼬불한 실오라기 산길이었다.

1907년 일본인 공동묘지가 있던 곳에 학교와 사찰 등이 들어서자 구릉을 헤치고 축대를 쌓아 ‘신작로’를 만들었다. 신흥동에서 경동을 거쳐 동인천역으로 가는 길목이자 경인가도와 연결되는 지름길이였다. 고(故) 최성연 선생의 ‘개항과 양관역정’에 따르면 이 공사를 시작한 것은 1907년 4월이며 같은 해 11월에 공사를 마쳤는데, 지금의 전동 전환국 청사에 주둔해 있던 일본군 공병대가 이 공사를 맡았다. 완공 후 화수동, 송현동 등에 살던 젊은 아낙네들이 하얀 머릿수건을 쓰고 신흥동 정미소 동네로 줄지어 출퇴근했던 슬픈 사연을 지니기도 한 길이다.

긴담모퉁이 중간 좁은 철문으로 굳게 닫힌 굴이 있었는데 이 굴은 언덕 너머의 신흥초등학교 내 동산으로 이어졌다. 신흥초 아이들 사이에서는 굴을 기르던 굴이라는 소문도 있었지만 일본군이 총, 폭탄 등 무기를 저장하기 위해 굴을 관 것으로 알려졌다. 70년대 들어 학교 측에서 굴의 입구를 봉쇄해 지금은 학교 쪽 입구는 볼 수 없고 긴담모퉁이 쪽은 철문으로 굳게 닫힌 모습을 볼 수 있다.

로마네스크 양식의 아름다운 ‘담동성당’과 인천복음서점

긴담모퉁이길 윗 편 너머에는 담동성당이 있다. ‘담동’이란 이름은 1977년 신포동에 편입되어 이제는 법정동으로만 존재한다. 하지만 여전히 이곳을 담동이라 부르는 것은 그 중앙에 우뚝 서 있는 담동성당 때문일 게다.

1889년 파리외방전교회는 제물포항을 포교지로 정하고 빌렘 신부를 파견했다. 청일전쟁으로 잠시 중단했던 성전 건립은 1895년 정초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이듬해 종탑을 완공하고 마침내 1897년 7월 4일 조선교구장 뮌텔(1890~1933년 재임) 주교가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축성식을 거행했다. 991㎡(300평) 규모로 전면이 세계의 종탑을 갖춘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전이었다.

세월이 흘러 신지수가 급격히 늘자 1934년 개축공사를 시작했다. 옛 성당을 그대로 둔 채 외곽을 벽돌로 쌓아올리는 난공사 끝에 마침내 1937년 로마네스크식의 성당이 세워졌다. 이것이 현재의 담동성당이다. 정면과 좌우에 반원 아치를 두고 중앙 탑 꼭대기와 양측의 작은 철탑 위에 뾰족 돔을 얹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인천 앞바다가 고즈넉하게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서 담동성당은 인천의 온갖 풍상을 함께 겪으며 동고동락해 온 인천의 산증인이다.

담동성당 가톨릭회관 옆에는 개신교 관련 서적을 파는 오래된 서점이 있다.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전문서점인 인천복음서점이다.

1957년에 이 서점을 연 이는 임형섭(82) 어른이다. 그는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6·25전쟁 당시 주한 영국군 부대 사무원으로 일했다. 기독교 전문서점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성경책, 찬송가, 성서 관련 책을 팔았으나 장사가 그리 잘 되지 않았다. 가게 세를 못내 부인의 결혼 반지를 팔아 보태기도 했다. 그는 영국군 부대 시절부터 갖고다왔던 영어실력으로 ‘성경의 역사(All about Bible)’라는 영문 서적을 ‘성경통론’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해 출간하기도 했다.



담동성당과 인천복음서점

그때, 이곳 사동

가부키좌 1905년 사동에 ‘가부키좌(歌舞後座)’가 개설되었다. 해안을 매립한 991㎡(300평) 대지 위에 일본의 가부키좌를 그대로 모방해 순일본식 2층으로 세워진 가부키좌는 130개의 전등에 불을 밝히고 약 1,000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었다. ‘설비가 완성된 점에서는 실로 현재 조선 유일이라 칭할 만한’ 근대 극장의 면모를 갖추었다. 가부키좌는 연중 245일간의 공연 일수의 3분의 2를 일본 신파극에 할애했다.

가톨릭회관 지금의 가톨릭회관 부지는 옛날에 붉은 흙이 드러나는 절개지였다. 도로를 내기 위해 땅을 절개하기 전 언덕이 있었고 탁포현이라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1900년 이 자리에 인천박문보통학교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2차대전 말 일본 관청의 소개 명령으로 헐려 오랫동안 방치되었다. 부지를 정리하고 1974년 10월 14일 지하 1층 지상 5층의 가톨릭회관이 들어섰다. 한때 전시장과 회의실, 그리고 지하에 다방이 있었다.

갑자생 의사, 故 이용각 의료원장 그를 보내며 장기이식의 개척자, 따뜻한 기타소리와 함께 하늘에 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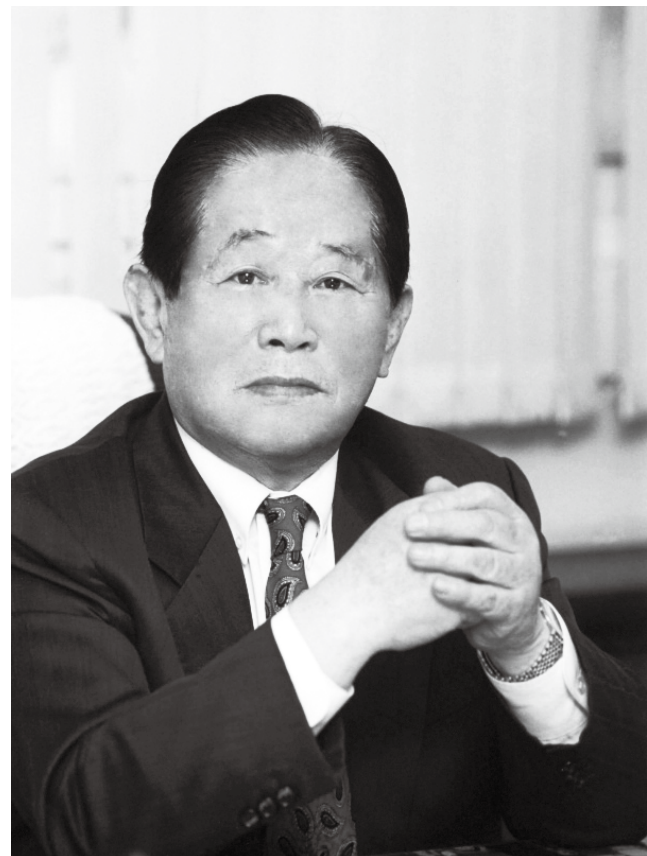
‘어느 갑자생(甲子生) 의사에게 바치는 오마주(Hommage)’ 한 편이 전해졌다.

연구년으로 해외체류 중 귀국한 황 건 교수가 장본인이다. 그는 오랜만에 병원 게시판을 찾다가
인하중앙의료원 초대 의료원장 이용각 교수님이 타계하신 것을 알고 아쉽고 아쉬운 마음을 글로 달래본다.

우리나라 최초로 신장이식을 주도했던 의사로서의 삶과 우리 병원 초대 의료원장으로 함께 했던

故 이용각 의료원장과의 추억이 그림다.

에디터_ 이정희



故 이용각 의료원장은 1969년 국내 최초 장기이식인 신장이식 수술을 성공하며 대한민국 장기이식의 개척자이고 1989년 인하중앙의료원 초대 의료원장으로 취임하여 인하대 의과대학과 병원 발전의 초석을 다진 우리에게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우리가 기억하는 故 이용각 의료원장과의 첫 만남

“성남에 있었던 인하병원 성형외과에 지원하면서 처음 뵈게 된 거죠. 체구는 작으셨지만 아주 다부지고 목소리가 카랑카랑하셨던 거로 기억해요. 20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니 당시 참 깨신 분이었구나 싶어요.”

故 이용각 의료원장의 스타일이 모든 의료원장의 모습인줄 알았다는 황 건 교수(인하대병원 성형외과)의 말이다.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셨지만 딱 보면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아우라가 있고 거침없이(?) 편하게 대해주는 것이 참 좋았다고 덧붙인다.

의사로 한평생을 살아온 저자가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지나온 생애를 회고한 그의 저서에 ‘갑자생 의사’라는 제목을 권유했던 황 교수는 지금은 더 멋지게 지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세월과 인술, 그리고 의술이 오롯이 담긴 외과 의사 이야기의



아픈 환자를 치료하고, 기타로 위로해주는 故 이용각 의료원장 (1960년 4월 25일 자 동아일보 기사 중에서)



1994년 인하병원 혈관촬영기 가동식에서(사진 왼쪽에서 네 번째)



인생 70년, 의사 50년의 인생을 담은 저서 ‘갑자생 의사’

근사한 제목은 어떨지도 생각해 본다.

콩팥이식의 길을 걸어갔던 외로운 선각자의 삶과 최고의 로맨틱 영화 주제곡 ‘다운 인 더 밸리(Down In The Valley)’를 끝까지 따라 부르던 감성의 삶이 오버랩 된다.

황 교수는 ‘갑자생’이라는 세대의 이름을 담고 싶었던 이용각 의료원장의 마음을 책에서 읽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성의학전문학교(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창생의 모임에 스포츠선수 같은 놈한테 하도 맞아서 나가기 싫다고 쓴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친구가 미안하다고 화해를 청했고 얼마 안가 그 친구는 죽었다며 마음이 몽클하게 쓴 부분이 많아요.”

의료원장 자리에서도 수술장에 서다

“소통을 많이 하셨던 분으로 기억해요. 원장님으로 계시면서도 수술을 직접 하셨고 병동 라운딩도 다니셨어요. 회진하실 때도 그냥 조용히(?) 하시는 법이 없었죠. 다리 정맥류 수술할 환자를 침대 위에 올라가게 하고 볼록 나온 정맥류를 마크하시면서 열정적으로 설명하시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당시 인하병원 외과병동 수간호사였던 김옥주 차장(현재 인하대병원 홍보팀)의 말이다.

새해면 한복을 입고 세배를 갔던 추억과 주례를 서주신 답례로 선물한 커피링크스 착용 인증을 해주시는 자상함, 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병원을 돌며 당신을 알리던 다부진 모습이 선하다.

“용각산은 원래 소리가 나지 않는데 왜 이~ 용각산은 소리가 많

이 나지?’ 라며 ‘이 용각산은 소리가 납니다.’ 수군대던 의사도 있었어요. 이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소통이었던 거지...”

아픈 환자를 치료하고 옆에서 기타로 위로해주는 故 이용각 의료원장의 사진이 공개되어 의술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감성의 사라는 것이 따스하게 와 닿는다.

딱 한 번 뵈 수 있다면, 선생님, 제 나이 때는 어떠셨어요?

“제 나이 때는 어떤 것을 고민하고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묻고 싶네요. 나이 차이 나는 주니어 닥터로만 우러러 봤는데 당시 선생님 67세. 제가 지금 그 언저리이고 보니 제 나이 때는 어떻게 지내셨는지를...”

황 교수에게는 이렇듯 가슴에 남는 마지막 멘토인 셈이다.

최초의 선각자였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한 거다.

결국은 선각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수술이 또 가능한 것이다. 우리 인하중앙의료원으로서 초석을 놓은 그를 기억해야 한다.

4.19 당시 다친 환자를 치료하고 기타를 치며 위로해주던 故 이용각 의료원장 흑백사진의 모습이 따뜻함이 스친다.

간혹, 우리 병원 타이틀이 빠져 있는 것을 보면 아쉬운 마음에 씩씩해진다.

오늘 더 그립고 그리운 마음으로 전하는 마지막 인사로 깊은 오비추어리를 적어본다.

Profile | 1969년 아시아 최초의 장기이식(신장) 시술
수상_ 2016 제10회 일송상 의학분야 2007 적십자상 박애장 금장, 국민훈장 목련장
경력_ 1999 제7대 한국심장재단 이사장 1989 제1대 인하중앙의료원 초대 의료원장 1988 가톨릭대 의과대 부속병원 병원장

하체 통통 째고 혈렁한 바지, 상체 빈약 꽃무늬로!~ 햇살 & 팔뚝 살 가려주는 레시가드

레시가드 열풍이 무섭대!

햇살, 팔뚝 살, 가려주는 몸매보정까지!

뜨거운 태양과 물속에서 자유롭게!

패션 피플들의 여름 필수 아이템으로 인기 급상승 중인 레시가드!

글_ 편집부



Rash Guard

바닷가와 수영장에서의 대세는 레시가드(rash guard)다.

수영복보다 노출이 적어 부담스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햇빛에 의한 발진, 화상 등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레시가드의 인기가 높다.

노출은 적은 대신 몸에 완벽하게 밀착되는 레시가드는 신축성과 복원력이 좋아 활동에 불편함이 없다.

레시가드란?

레시가드는 피부 마찰, 일광화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신축성 뛰어난 소재로 만들어진 수상 스포츠웨어다. 영어로 '발진'을 뜻하는 '래쉬(rash)'와 '보호대'라는 의미의 '가드(guard)'가 합쳐진 말로 서퍼들을 위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처음 개발되었다고 한다.

긴팔 티셔츠처럼 생긴 스포츠웨어인 레시가드는 노출이 덜하고 팔과 허리를 가려주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주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준다. 또한, 계곡이나 바닷가 등지에서 바위, 산호초, 모래 등에 긁혀 상처 입는 것을 방지해주기도 한다.

레시가드 관리법은?

무턱대고 탈수거나 세탁기를 사용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물놀이 후 최대한 빨리 수돗물로 행구어 주어야 옷감이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젖은 레시가드를 비닐봉지에 넣으면 안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원단이 상하거나 탈색될 수 있으므로 젖은 수건 등으로 감싸는 것이 좋다. 이때 색깔별로 분리해서 보관하는 센스도 잊지 말자.

또 강하게 비틀면 소재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탈수기를 사용하거나 손으로 짜면 안 되고 마른 수건을 이용해 꼭꼭 눌러서 물기를 없애는 것이 좋다. 말릴 때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그늘에서 자연 건조 시키면 된다.

중성세제를 30도 정도 미지근한 물에 담근 뒤 손으로 주물러 이물질을 제거하고 차가운 물로 행구면 된다.

레시가드 인기 비결?

3~4년 전만 해도 수상 스포츠 마니아들만 착용했던 레시가드는 요즘은 일반인도 즐겨 입는 스포츠 의류로 젊은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비키니의 아성을 무너뜨렸다.

물놀이 시 몸을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일반 수영복보다 노출이 적다는 특징이 인기비결의 첫 번째이다. 또 자외선 차단과 멧스러움을 동시 충족시켜줄 뿐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 착용할 수 있도록 사이즈, 스타일이 다양하다.

전신을 덮는 형태여서 물놀이를 할 때, 몸을 보호해주고 일반 수영복보다 상대적으로 노출이 적은 특징이 있다. 게다가 체형 보정 효과까지 있어 여름철 해변 패션으로도 인기가 높은 거다.

가릴 건 가려주고 체형을 보정시켜 여성이 가진 건강미와 섹시미를 살려주고 기능성과 활동성까지 갖췄기 때문에 일석삼조인 셈이다.

선택요령

일반 수영복보다 높은 가격 대이어서 위, 아래 한 벌을 갖춰 입을 경우 10만 원을 웃도는 경우가 많으므로 꼼꼼한 제품 확인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능성이다. 옷감의 자외선 차단지수인 UPF에 따라 차단 정도가 달라지므로 자외선 차단 지수(UPF)가 50 이상인 소재를 사용해 자외선을 99% 차단해주는 제품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물에서 나왔을 때 빨리 건조되는지, 그리고 착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사방신축이 가능한 기능성 소재를 사용했는지, 물 빠짐이나 변색, 탈색 테스트를 거친 제품인지 확인하도록 한다. 안전성과 품질을 보증하는 KC마크가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사이즈는 너무 넉넉한 것보다는 몸에 꼭 맞는 타이트한 사이즈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사이즈보다 큰 제품을 선택할 경우, 주름이 많이 생겨나고 너무 작은 제품은 활동 시 불편할 수 있다.



Tip
가리고 드러내고!!

착시효과 활용, 몸매 보정

긴 팔 기본형 외에도 집업, 후드 집업, 반팔, 크롭 톱, 탱크톱 등 다양한 디자인이 나오는데 비키니와 브라 톱 레시가드가 주목받고 있다. 올해는 단색보다는 두 가지 색상을 배색한 레시가드가 유행이다. 레시가드의 탄력성 때문에 기본적인 체형 보정이 가능하지만, 디자인을 통해 착시 효과를 준다면 좀 더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올해 트렌드 래글런 소매 래글런 소매는 목깃에서부터 소매 아래까지 이음선이 사선으로 비스듬하게 이어지는 디자인이다. 야구점퍼나 맨투맨 티셔츠 등에 많이 사용되는데, 어깨선이 중앙으로 모이기 때문에 어깨가 좋아 보인다.

색상의 대비 몸매가 날씬해 보이는 특징이 있다. 허리 옆 라인에 다른 색깔로 배색하면 허리가 들어가 보이는 효과가 있고, 줄무늬가 비대칭으로 배치된 제품은 늘씬하고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

스트라이프 패턴 가로 스트라이프로 돼 있는 옷은 착시 및 시선 분산 효과를 얻어 몸매를 더욱 날씬하게 보이게 한다.

화려한 무늬 상체가 빈약한 경우, 화려한 무늬가 있는 레시가드를 입으면 시선이 분산되고 발랄함까지 더해질 수 있다.

하체가 통통족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는 팍 조이는 바지보다 짧고 혈렁한 바지를 입어주는 것이 더욱 날씬해 보인다.

체형 커버형 만약, 레시가드를 입었을 때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는 게 불편하다면 레저형 조끼를 입어서 몸매를 가리는 방법도 있다.

여름철에는 몸 안팎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신진대사가 촉진되어 비타민 등의 영양소가 소모되는데, 특히 비타민 B1은 체내의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만드는 필수성분으로 부족 시 식욕부진, 체중감소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체온을 식히기 위해 방출되는 땀에는 수분과 무기질을 비롯해 염분(NaCl) 등이 들어 있어, 땀 등을 통해 배출된 염분의 보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위산에 들어가야 할 염분이 체내에 부족해져 위산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소화능력의 감소로 입맛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여름철에는 수분과 염분 무기질을 비롯하여 체내에서 소모되는 비타민 단백질 등의 영양소는 부족하고 아울러 입맛은 없어

는 상황으로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지므로 이를 이겨내기 위한 적합한 영양섭취가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양질의 단백질 보충 필요

닭고기와 돼지고기와 같은 육류를 비롯해 제철인 농어와 갈치 같은 생선이 단백질 보충에 도움을 줍니다.

삼계탕 삼계탕에 들어가는 닭은 고단백질의 식품으로 단백질과 필수아미노산을 보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어 면역력을 높여 주고, 부재료로 같이 넣고 푹 고아진 마늘과 참쌀, 대추 등에는 소화기관의 활동을 도와주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 여름철 입맛이

없을 분들에게는 안성맞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콩국수 콩은 저지방 고단백질 식품으로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하면서 시원한 입맛까지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영양이 풍부하고 항암작용도 뛰어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어 동맥경화를 방지해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추어탕 추어탕은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 피로개선과 원기를 회복하는 데에 좋습니다. 특히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 어른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음식으로 꼽을 수 있으며, 깻잎이나 쑥갓 등을 곁들여 먹으면 향도 좋습니다.

단백질만큼 중요한 비타민과 무기질

녹황색 채소와 과일 섭취가 필요하며 신선한 제철 채소와 과일의 경우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은 상태이고,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의 확률도 낮아 제철 식품으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매체인 '월스트리트 지트 시트'가 더위 극복에 유익한 과일과 채소 5가지로 수박, 오이, 피망, 자몽, 딸기를 선정하였습니다.

오이 오이는 수분 함량이 95% 이상으로 수박보다도 높습니다. 또한 플라보노이드 등 식물성 생리활성 물질(피토케미컬)을 함유하고 있어 노화의 주범인 활성(유해)산소를 없애는 항산화 성분인 동시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도 있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하여 여름철 갈증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수박 수박은 92%가 수분이고 비타민 A와 C도 많이 들어있고 근육통을 완화해주며 운동 직후 선수들의 심장박동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영양 보충을 위해서는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생'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음식이 상해 먹고 탈이 있다면 오히려 해가 될 뿐입니다. 특히 여름철 쉽게 발생하는 식중독은 그 증상이 심하면 죽음으로 까지 이어지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때 이른 고온현상과 큰 일교차 등으로 음식관리에 조금만 소홀해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 음식물의 보관, 관리,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여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안전 관리 방법을 발표하였습니다.

식재료 구입·운반·보관 시

- 식재료는 필요한 만큼만 상온보관 식품부터 냉장·냉동식품의 순으로 유통기한표시사항을 잘 확인하여 신선한 식품을 구입하도록 합니다.
- ※ 식재료 구입 순서 : 밀가루, 식용유 등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 → 과일·채소 → 햄, 어묵 등 냉장이 필요한 가공식품 → 육류 → 어패류
- 식품을 운반·보관할 때는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등을 이용하여 10℃ 이하 냉장상태로 차갑게 운반해야 합니다.
- ※ 음식물은 차에 오랫동안 보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리 시

- 조리할 때는 조리 전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합니다.
- 닭 등 가금류, 수산물 등을 세척할 시에는 주변에 날로 섭취하는 채소, 과일 등에 물이 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조리가 되지 않은 식품과 이미 조리가 된 식품은 칼·도마를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 육류, 가금류, 달걀 및 수산물은 내부까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야 합니다.
- 특히 냉면, 콩국수를 조리 시에는 육수와 콩국을 가열 조리한 후에 위생적으로 신속하게 냉각시켜야 합니다.
- ※ 올바른 냉각 방법은 ▲여러 개의 금속용기에 나눠 담기 ▲싱크대에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후 큰술이나 냄비를 담그고 규칙적으로 젓기

섭취 시

- 조리한 음식은 상온에 2시간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 가능한 한 빨리 섭취해야 하며 날로 섭취하는 채소와 과일은 깨끗이 세척하여 섭취해야 합니다.

여름철, 건강을 이롭게 하는 올바른 식사

무더운 여름철에는 낮 기온이 섭씨 30도를 넘는 폭염으로 더위에 지쳐서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밤이면 열대야로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또한, 냉방시설이 잘된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실내·외 기온의 급격한 변동으로 일상생활의 리듬이 깨져 쉽게 지치게 됩니다. 건강하게 여름을 나기 위해서는 더위 속에 변화하는 몸에 맞는 적절한 음식 섭취는 물론 식중독과 같은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계절인 만큼 위생적으로 안전한 식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글_ 임현숙 팀장 / 영양팀





직원의 행복과 고객감동을 위한 "생생 인하통~"



"현장의 소리"는 고객과 직원의 마음의 소리까지 듣는 진정한 경청(傾聽)현장이다. "직원이 일하기 행복한 병원에서 고객감동의 가치는 높아집니다"라는 진행 리더의 음성에서 고객을 향한 진심이 묻어난다. 이른 아침, 아직 환자들이 오기에는 이른 시간이다. 두 명의 주사실 간호사는 청소와 주변 정리, 약품 상태 점검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그 손길에서 환자에 대한 배려와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향한 다짐이 느껴진다.

글_유미애 파트장 / 서비스혁신팀 사진_김미란 과장 / 서비스혁신팀

"힐링 터치(healing Touch) - 약으로만이 아닌 손길에서 치유를"

주사실 문이 활짝 열리고 파란 자켓을 입은 고객 현장 지킴이 리더들이 주사실을 방문하여 "축하합니다. 전국대학병원 선정 가장 주사를 잘 놓는 부서로 선정되었습니다"라며 수상 팻말과 선물을 전달하고 근무 중 어려운 점, 건의사항, 고객불만 사항 등 직원의 소리를 경청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그를 통해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의 행복감을 높이고, 이용하는 환자분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고 편안한 마음과 몸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함께하는 대학병원 역할을 하고자 한다.

"직원의 아픔은 우리가 돌봅니다"

주사실의 특성상 손목을 많이 써야 해서 늘 손목과 손의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마련한 손 마사지 시간, 마사지를 받는 직원도 해주는 서비스혁신팀 직원과 고객현장 지킴이도 손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감동과 사랑을 느낍니다. 그 손길이 환자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의료기관으로서 최상의 가치인 인간존중을 실천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또 다른 현장의 소리에서는 분주하고 신속해야 하는 부서의 특성상 늘 마음이 불안한 원무팀 수납직원들에게 고객현장 지킴이가 출동했다. 이들에게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봉사와 자기과업을 묵묵히 수행해나가는 사람의 감동적인 이야기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무를 심은 사람(장 지오노 作)'을 소개하며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한 인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음을 인식시키고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했다

"행복이 필요할 때 '고객현장 지킴이'를 찾아주세요"

본 프로그램은 직원의 행복과 고객감동을 목적으로 2014년 발족 된 CS(Customer Satisfaction고객만족)리더팀의 활동이며 CS 리더팀은 병원의 다양한 직종들로 구성된 병원자체 회의체로서 직원과 고객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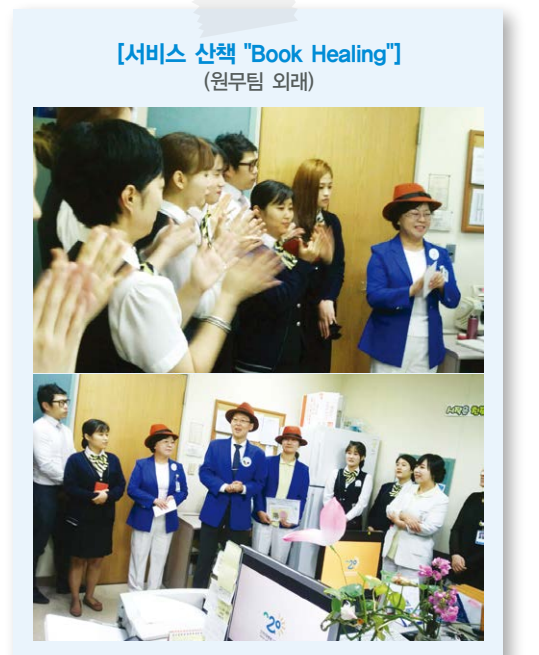
이렇듯 부서마다 필요한 부분을 돕고 격려하여 직원이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를 만들고자 한다. 행복한 직원이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고 섬김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생생인하통"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하게 발전시킬 예정이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오직 인하대병원에서만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모든 직원이 제공할 수 있는 그 날을 위해 오늘도 생생 인하통은 출동한다.



현장의 소리
[No 1. 프로젝트] 고객에게 인사, 호응 제일 잘하는 부서 (대표전화, 전화예약실)



[No 1. 프로젝트]
검사예약을 제일 잘하는 부서 (통합검사예약)



[서비스 산책 "Book Healing"]
(원무팀 외래)

웹툰 작가 강풀과 함께, 심뇌혈관질환 조기증상 홍보 콘텐츠 제작



뇌졸중 조기증상은?



심근경색증 조기증상은?



심뇌혈관질환 조기증상 홍보 캠페인은 **인하대병원**과 **만화가 강풀**이 함께합니다!

EVENT 수인선 열차 내 '심뇌혈관질환 조기증상' 인증샷 이벤트 (2016. 8. 22~9. 30)가 진행 중입니다.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블로그(<http://blog.naver.com/iccvc>)를 참조하세요!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유명 웹툰 작가 '강풀'과 함께 심뇌혈관질환 조기증상 홍보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지역사회 뇌졸중, 심근경색증의 조기증상 인지도 향상을 위해 제작된 이번 홍보 콘텐츠는 만화 캐릭터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했으며, 주목성을 높이기 위해 강풀 특유의 그림체로 구성되었습니다.

콘텐츠는 7월 18일부터 수인선 지하철 내 조명광고에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홍보되고 있으며,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홈페이지 (<http://iccvc.inha.com>)와 블로그(<http://blog.naver.com/iccvc>)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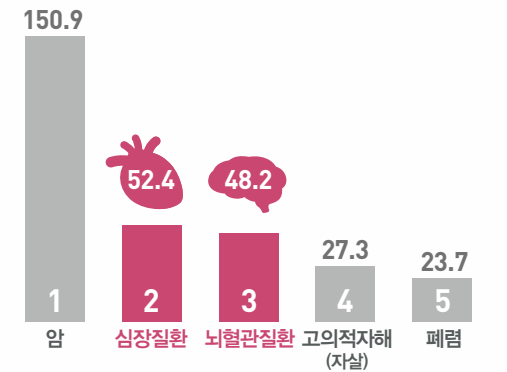
인천은 뇌졸중, 심근경색증 등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인천 지역의 뇌졸중 사망률은 10만 명당 35.1명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전국평균 30.9명).

반면, 심뇌혈관질환 조기증상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낮습니다. 2014년 심뇌혈관질환 조기증상 인지도 조사 결과, 심근경색증 증상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시민은 13.3%로 전국 평균 14.4%에도 못 미치는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뇌졸중 또한 증상 인지도가 19.7%로 전국 평균 17.5%보다는 다소 높으나 질환 증상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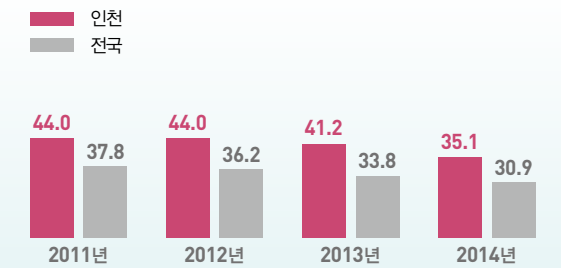
골든타임이 중요한 심뇌혈관질환 특성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시민들이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심뇌혈관질환 조기증상과 대처방법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를 향상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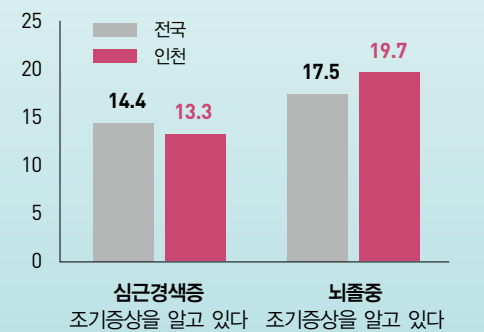
2014 한국인 사망원인
*인구 10만 명 당 기준(명) | 자료 : 통계청(2015)



인천시민 뇌졸중 사망률
*인구 10만 명 당 기준(명) | 자료 : 통계청(2015)



인천시민 심뇌혈관질환 조기증상 인지도
*인구 10만 명 당 기준(명) | 자료 : 심뇌혈관질환 조기증상 인지도 조사 결과 보고서(2014)



생명존중콘서트 그 후 이야기...



마음에서 노래가 들린다.
나는 오늘도 희망의 노래를 듣는다.
말보다 가슴이 뜨거운 노래를 듣는다.

“이제 다시 시작인 거야
잠시 힘에 겨운 건
오랜 후에 이 순간을 웃으며 말할 거야~~”

글_ 김시현 차장 / 공공의료사업지원단



2016. 5. 21. 승도 트라이볼

너무도 가슴 뜨겁고 따뜻했던 그 시간과 그 기억을 지울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벅찬 감동의 히어로 부활의 김재희님.

늘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로 알았던 연예인을 만나던 날 난 나름 한껏 치장했다. 가수란 사람들은 얼마나 화려할까 궁금했다. 헉~ 이 사람의 자체발광에 내가 쪼그라든다. 그런데... 병원장님과 인터뷰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이 사람 참으로 맘이 따뜻하다. 그리고 깊다. 한껏 치장한 인위적인 나를 부끄럽게 만든다.

내가 처음 본 김재희님은 따뜻하고 깊은 사람이었다. 언제나 제 자리에 있을 것 같은 사람, 감사하다 고맙다 다정한 인사를 건네는 사람... 그 맘 깊숙이 애민의 마음까지도 녹아있다. 이 사람 참 마음까지도 멋있다.

인하대병원 20주년 생명존중콘서트

김재희님이 33회까지 이끌어 온 생명존중콘서트가 34회에 인하대병원과 만났다. 김재희님의 따뜻하고 깊은 마음이 인하대병원의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랑과 만났다.

열정과 감동 그리고 깊은 울림이 있던 날...

인하대병원은 인천시청과 지역사회 보호아동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의 아픈 아이들이 이 확고한 사회 관계망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이다.

최소한 인천에서라도 아픈 아이들이 없어야 하고, 더는 사회에서 잊혀지는 슬픔이 없어야 한다.

인하대병원은 지역사회 대표 병원으로 늘 지역사회에 대한 사명감을 실천으로 나누고 있다.

이번 생명존중콘서트 또한 우리 주변의 아픈 누군가를 위해 마련했고, 그 행사의 모금액으로 아픈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을 내민다. 내가 몸담고 있는 인하대병원은 늘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병원이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고마운 병원이다.

생명존중콘서트 모금 액 528만 원을 어린이재단에 기부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의 가운데는 부활 김재희님이 있었다.

감사합니다. 힘든 아이들을 위해 귀한 모금 액 잘 쓰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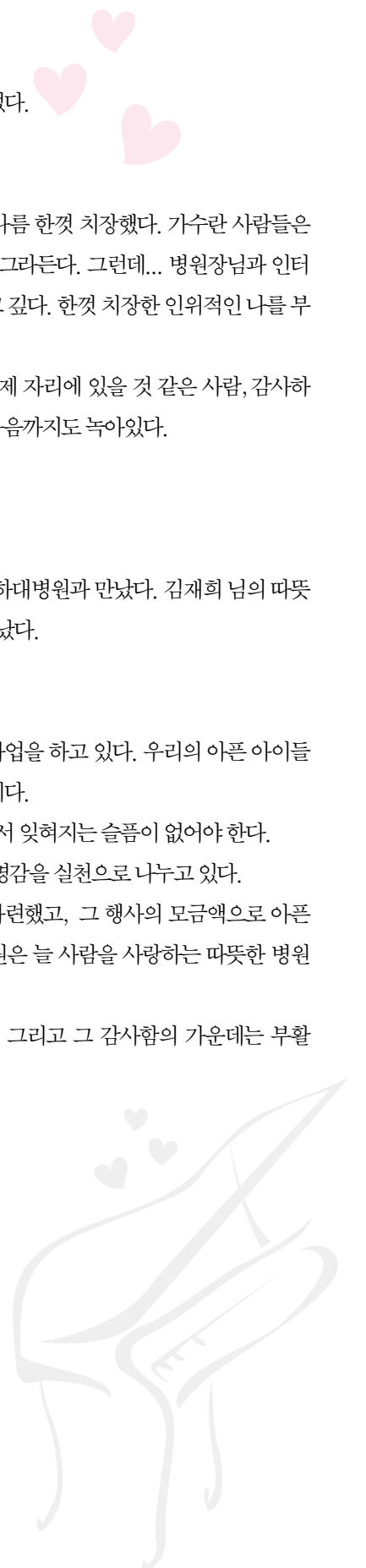
아~~ 희망의 노래가 이런 큰 힘이 있었다는 걸 이제 알았다.

그래서 난 오늘도 희망가를 흥얼거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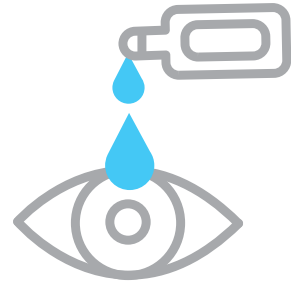
“이제 다시 시작인 거야

잠시 힘에 겨운 건

오랜 후에 이 순간을 웃으며 말할 거야~~”



유행성 결막염 예방과 올바른 안약 사용법



여름철 물놀이를 가려고 합니다. 유행성 결막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행성 결막염은 바이러스에 의해 일어나는 눈병으로, 직접적인 신체접촉, 매개물, 수영장 등을 통하여 전염되며, 수영장 등에 자주 가는 여름철에 주로 유행합니다.



유행성 결막염을 예방하려면,

- ① 물놀이할 때, 손으로 눈을 만지는 행동을 자제하세요.
- ② 수시로 손을 씻어 개인위생에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 ③ 공공장소에서 세면 수건이나 비누 등 눈과 직접 접촉될 수 있는 물품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올바른 안약 사용법을 알려주세요.



- ① 사용 전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 ② 약병 끝이 눈이나 다른 것에 닿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합니다.
- ③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누운 후, 집게손가락으로 아래 눈꺼풀을 당겨서 주머니 모양으로 만듭니다.
- ④ 다른 손으로 약병을 잡고 정해진 용량만큼 아래 눈꺼풀의 주머니 모양으로 만든 부위에 떨어뜨립니다(보통 1~2방울이면 충분합니다.)
- ⑤ 눈물샘을 30초~1분간 지그시 누릅니다(약이 눈 이외의 부위로 흡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 ⑥ 손가락을 떼고 2~3분간 눈을 감고 있습니다.
- ⑦ 2종류 이상의 안약을 점안 시, 약효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3~5분 투여 간격을 둡니다.
- ⑧ 안약으로 치료하는 기간 콘택트렌즈의 사용을 피합니다.
- ⑨ 안약은 개봉 후 1개월 정도가 지나면 오염의 우려가 높으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Ref. 대한약사회-의약품복용법

- ◆ 항상 환자분들 곁에 인하대병원 약사들이 함께합니다.
- ◆ 약에 대한 문의는 : 주간 032) 890-3323, 3327 | 야간 032) 890-3315

양·한방 협진 시너지 효과, 상호보완 환자치료, 삶의 질을 높이다!



효사랑요양병원 이민호 병원장

2009년 12월 인천시 계양구에 140병상 규모의 양·한방 협진 요양병원으로 개원한 '효사랑요양병원'은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민호 병원장을 중심으로 한 의료진과 직원은 한마음으로 소통하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자와 함께하는 양·한방 협의 진료를 하고 있다.



사명감 있는 의료기관으로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존재

양·한방 진료는 병에 대한 접근은 다르지만 협진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효사랑요양병원은 빠른 사회 복귀를 위해 양·한방 협진 진료체계를 상호보완하여 환자의 치료 효과를 높이고 있다.

“양·한방 협진을 통하여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안이 될 수 있는 사명감 있는 의료기관으로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존재하는 병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위의 격려와 기대감으로 기분 좋은 긴장이었다고 개원 첫날을 회상하며 또다시 초심을 곱씹어 보는 이민호 병원장의 말이다. 갈수록 고령화되는 사회 추세 속에서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면 결코 인생의 후반기를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인다.

의료 질과 시스템은 기본이고 병원 내 분위기는 보이지 않게 중요한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는 생각으로 직원들에게 일하기 좋은 병원, 떠난 후에도 항상 그리워할 수 있는 병원으로 남고자 효사랑요양병원 전 직원은 마음을 하나로 묶는다.

“말로만 강조하는 애사심이 아니라 직원들이 진심으로 이 병원을 좋아하고 자랑스러워 할 때 환자와 보호자에게 자절로 친절과 보살핌이 우러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가족들보다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곳이 직장인데 즐거워야 개개인의 행복지수도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가족애와 배려를 항상 강조하는 이 병원장의 말이다.

끌어주고 밀어주는 인하대병원과 진정한 파트너십 기대

효사랑요양병원은 인하대병원과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기대한다. 이 병원장은 진정한 파트너십이란 각자 자리한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 위치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음으로 양으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협력관계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계를 구축해가며 남들이 부러워하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좋은 관계를 그려본다.

또한, 지역사회도 공동체 의식과 함께 배려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의료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 중이다.

‘내가, 나만 행복할 수는 없다. 아니 행복해 질 수 없다.’는 것이 이 병원장의 생각이다.

사회구성원 모두 노력하여 행복을 누릴 때 나 또한 행복해지는 것이라는데 그 이유는 나 또한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라고 전한다.

| 진료과 | 내과, 가정의학과, 한방과

| 진료내용 | 뇌졸중(중풍), 치매, 파킨슨 증후군, 신경성 희귀 난치성 질환, 심혈관계 질환, 노인성 질환, 중증질환, 고혈압 만성질환, 장기요양환자, 호스피스, 욕창 치료 전문 및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 진행

*인공호흡기(벤틸레이터)

●인천시 계양구 장제로 672 ☎ 032-543-7582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병원' 인하대병원, 국내 최초 3회 의료기관 전 부문 국제의료기관평가(JCI) 인증



인하대병원은 지난 7월 4일(월)~8일(금) 동안 시행된 인증 최종평가(Accreditation Survey)를 마치고, 국내 최초로 의료원 전 부문에 걸쳐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3차 인증에 성공했다.

이로써 인하대병원은 지난 2010년 7월 21일 최초인증, 2013년 6월 12일 재 인증에 이어, 이번 3차 인증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임을 다시금 입증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의료센터, 임상시험센터 등 부속기관을 포함한 의료원 전 부문 인증유지에 성공하여, 글로벌 환자안전시스템이 병원 전체에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4면 참조)

인하대병원 공공의료 사업지원단, 2016년도 제1차 국제의료봉사단 몽골에 파견



인하대병원 공공의료 사업지원단(단장 송준호 교수/신장내과)은 몽골에 2016년도 제1차 국제의료봉사단을 몽골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봉사는 대한항공과 함께했다.

인하대병원 재활의학센터 김명옥 교수를 단장으로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간호사, 약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몽골 바가노르 지역을 방문하여 보건환경이 열악한 현지인을 위해 의료지원 활동을 진행했다.

송준호 단장은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구촌 곳곳을 찾아가며, 올해도 최선을 다해 지구촌에 나눔의 가치를 전파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하대병원-인천시-웅진군, 제 5차 민간협력 도서지역진료 '섬 프로젝트' 소이작도에서 실시
인하대병원은 살기 좋은 섬 조성을 위해 인천시가 진행하고 있는 '섬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제5차 민간협력 도서 지역 무료 진료를 웅진군 소이작도에서 지난 17일 실시했다.



병원 심뇌재활센터장 김창환 교수 등 인하대병원 의료진이 참여하여 통증 완화 치료를 비롯한 다양한 진료를 통해 섬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노력을 기울였다.

김영모 병원장은 "민관협력의 모델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전방위적 노력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공의료 사업지원단,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통해 생명을 지키는 움직임을 알려



인하대병원 공공의료 사업지원단은 지역사회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은 인하대병원이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운영하며 '골든타임' 사수의 중심 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심폐소생술 보급에 앞장서 표준화된 심폐소생술 교육

을 통해, 응급상황에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실시되었다.

공공의료 사업지원단은 지난 4월 27일, 운서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최근 5월 31일에는 당하중학교를 방문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했다.

인하대병원 직원들, 급여 자투리 모아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온라인과 SNS를 통해 알려진 생리대 문제로 촉발된 저소득층 소녀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인하대병원 직원들의 급여 자투리가 사용된다.

2016년 6월 24일, 인하대병원과 각 기관 관계자가 모여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방안 논의했으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급여 자투리 금액 500만 원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에 전달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인천광역시 여성문화협회의회도 각각 1천 3백만 원과 2백만 원을 기탁했다.

전달된 모금액 2천만 원은 청소년쉼터 등에 지원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청소년들의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러시아 지자체 보건국장, 인하대병원 방문해 향후 협력관계 논의



인하대병원은 6월 29일, 러시아 시베리아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이르쿠츠크주의 올렉 야로렌코 보건국장이 방문해, 향후 협력관계를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야로렌코 국장은 국제진료센터와 사이버나이프센터 등 진료시설을 둘러보고, 안승익 진료부원장과 면담에서 이르쿠츠크주의 암, 소화기, 호흡기 중증질환 환자 송출 시 인하대병원에서의 치료 방안 등에 대한 질의를 비롯해 향후의 공동협력 관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하대병원 척추센터, 1주년 기념 심포지엄 성료



2016년 7월 1일, 인하대병원 척추센터(센터장 조규정 교수/정형외과)는 '척추센터 창립 1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 척추질환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최신 지견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었다. 인하대병원 척추센터는 지난 2015년 3월, 병원을 찾는 고객 중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구축된 인하대병원 외래전문 질환센터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해외 의료진 연수 통해 전하는 글로벌 나눔의료

2016년 7월 7일, 인하대병원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의 주관 하에 수탁 운영과정을 맡은 '2015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의 수료식을 실시했다.

연수과정을 마친 우즈베키스탄 의사 알리셔 카하로프(Alisher Kahharov)와 재곤길 미르자라히



모프(Jakhongir Mirzarakhimov)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인하대병원에서 외과 조영업 교수와 병리과 최석진 교수의 지도 아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인하대병원, 의료산업 네트워크를 위한 Inha Bio-Medical Research Fair 개최



2016년 7월 13일, 인하대학교 정석학술정보관에서 인하대 임상, 기초의학, 공대, 자연대가 함께하는 '2016 Inha Bio-Medical Research Fair'를 개최하고, 의료산업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협력의 장을 마련하였다.

연구중심병원 전환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는 인하대병원이 의료산업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유타-인하DDS 연구소를 비롯한 바이오 산업체 관계자 등 100여명을 초청해 개최하였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연구역량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사업화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인하대병원, 2016년도 '환자안전의 날' 행사 개최하며 환자안전의 진정한 가치 공유의 장 열어



2016년 6월 1일, 인하대병원은 JCI 3차 인증에 대

비하여 직원들과 환자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 '2016년도 환자안전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임원진의 안전관리 점검(Safety Rounding)을 시작으로 손 위생 동기부여를 위한 감염관리 미션수행, 개인정보보호 퀴즈대회, 외부강사 초청 특강, 전산장애 재난 대비 훈련,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진료과정 참여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Speak Up 캠페인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2016년 암성통증 캠페인 개최



2016년 6월 8일, 국립암센터 주최 2016년 암성통증 캠페인의 목적으로, 암성통증에 대한 의료진과 일반인의 인식 제고를 위해 교직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암성통증 캠페인을 개최했다. 약 120명의 교직원과 일반인이 암성통증 관련 OX 퀴즈 및 설문지 작성 이벤트에 참여하였고, 마약성 진통제 및 통증에 관련된 오해를 해소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자리가 되었다.

유방갑상선외과센터, '갑상선 암 궁금증 풀기' 건강강좌 성료



인하대병원 유방갑상선외과센터(센터장 김세중 교수)는 지난 6월 10일, 인하대병원 3층 강당에서 개최된 '갑상선 암 궁금증 풀기' 건강강좌를 성료했다. 갑상선 암 환자와 가족,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갑상선 암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개최한 이번 행사는 다양한 섹션으로 구성되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이 되었다.

인하대병원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제3회 심혈관센터 개원의 연수강좌-심방세동 A to Z' 성료



인하대병원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권역센터장 정한영 교수)는 지난 6월 11일 병원 3층 강당에서 인천권역 개원의를 대상으로 '제3회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심혈관센터 개원의 연수강좌'를 실시했다.

인천, 부천, 시흥 지역 개원 의사들과 심혈관질환에 대한 최신지견을 공유하고자 실시된 이번 연수강좌는, '심방세동 A to Z'를 주제로 진단·평가·치료에 이르는 넓은 영역을 다루어 실질적이고 유익한 정보 교류의 장이 되었다.

인하대병원 혈액은행, 국가 혈액사업 발전에 이미지 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인하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혈액은행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하는 혈액수급관리 표본감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6월 14일 개최된 '헌혈의 날' 행사를 맞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인하대병원 혈액은행은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해 의료기관 자체 헌혈캠페인을 실시하여 안전한 혈액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치과 센터 오남식 교수, 제9회 의료기기의 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수상



2016년 5월 27일, 인하대병원 오남식 교수가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된 '제9회 의료기기의 날 기념식'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받았다.

인하대병원 인천금연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감사패 수여 받아



2016년 7월 22일, 인하대병원 인천금연지원센터는 인천 지역의 보건사업을 활성화하며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성인 흡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천 지역을 기반으로 금연캠프를 비롯한 다양한 금연프로그램을 운영,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는 평가를 받으며 감사패를 수여받게 되었다.

언론에 비친 인하대병원

2016. 6. 17
출연: 인하대병원 척추센터 의료진
프로그램: 경인방송 라디오 90.7MHz '인전을 듣습니다'
내용: 인하대병원 척추센터, 주년 심포지엄 개최

2016. 6. 26
출연: 직업환경의학과 임종환 교수
프로그램: KBS (뉴스 9)
내용: 방향제 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2016. 6. 28
출연: 신장내과 황선덕 교수
프로그램: 중부일보
내용: 만성질환 예방... '생활습관 가이드'

2016. 7. 5
출연: 심장내과 권성우 교수
프로그램: 기호일보
내용: 심방세동

2016. 7. 7
출연: 인하대병원 인천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프로그램: 경인방송 라디오 90.7MHz '인전을 듣습니다'
내용: 인하대병원 웹툰작가 강들과 홍보 콘텐츠 개발

2016. 7. 14
출연: 영상의학과 전용선 교수
프로그램: 동아일보
내용: (인하대병원 메디스토리) '파형증' 치료

2016. 6. 1
World Best Safety
출연: 직업환경의학과 임종환 교수
프로그램: SBS, CNBC 라디오 뉴스
내용: 가슴기 살균제

2016. 6. 1
출연: 소화기내과 방병욱 교수
프로그램: 경기일보
내용: 크론병

2016. 6. 29
출연: 대외홍보정책실장 송준호 교수 외 관계자
프로그램: 경인방송 라디오 90.7MHz '인전을 듣습니다'
내용: 인하대병원 '생명존중 콘서트' 모금액 전달

2016. 7. 19
출연: 이비인후과 김현지 교수
프로그램: 인천일보
내용: 이명

2016. 6. 15
출연: 외과 김세중 교수
프로그램: 동아일보
내용: 인하대병원 메디스토리 유방암

2016. 7. 2
출연: 직업환경의학과 임종환 교수
프로그램: KBS (사랑의 가족)
내용: 장애인 주치의 사업

2016. 7. 20
출연: 소아청소년과 김근영 전공의
프로그램: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형)
내용: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건강교실 안내

건강교실명	내용	개최일시	개최장소	문의전화
유방암 환자 교육	●유방암 환자의 식이 ●유방암 수술 후 관리 및 림프부종 관리 ●유방암 환우들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지원 ●유방전문의와의 상담 및 환우들과의 대화 - 유방암 환우 및 가족(유선신청)	8월 11일(목) 9월 21일(수), 10월 13일(목) 오후 2시 ~ 4시 30분	3층 예방센터 회의실	유방·갑상선외과센터 (032)890-2560~1
대장암 환자 교육	●대장암의 이해 ●대장암 환자의 영양 - 교육을 원하는 경우 사전 신청 바랍니다.	홀수달 넷째 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3층 2 세미나실	암 진료 상담실 (032)890-3600, 3638
암 환자 음악 요법	●암 환자를 위한 음악요법(우쿨렐레 배우기) - 희망하시는 분은 암 진료 상담실로 문의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층 1 세미나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심뇌혈관질환 위험요인 무료검사 및 금연/영양 상담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 오후 4시	신관3층 예방관리 센터 간병술기실	예방관리센터 032)890-2135, 2137
	●이상지질혈증의 이해(심장내과 박상돈 교수)	8월 2일(화) 10:30~11:30	강화군 보건소	
	●심근경색의 이해 및 관리(심장내과 우성일교수)	8월 31일(수) 10:30~11:30	계양구 보건소	
	●고혈압과 뇌졸중(신경과 윤혜원교수)	8월 31일(수) 14:30~15:30	중구 보건소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 등(예방관리센터 교육전문간호사)	9월 6일(화) 10:00~11:00	강화군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자기관리법(뇌혈관센터 교육전문간호사)	9월 27일(화) 14:00~15:00	연수구 보건소		

교육 안내

강좌명	제목	일정	문의전화	비고
의료인과 일반인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의료인 신규과정 ●의료인 갱신과정 ●일반인 과정	홈페이지 참조 (www.inha.com)	예방관리센터 032-890-2130, 2142	등록비는 홈페이지 참조
의료인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ACLS)	●의료인 전문과정		인사교육팀 032-890-2887	

전시회 및 공연 안내

전시일정	제목	작가	장소	문의전화
2016. 08. 05 ~ 08. 25	스물, 거꾸로 보는 세상	임채진	2층 갤러리	홍보팀 032-890-2603
2016. 08. 26 ~ 09. 22	사진전	김기현		
2016. 09. 23 ~ 10. 13	이남희 개인전	이남희		

파랑새 소식

파랑새는 인하대병원 유방암 환우회의 이름입니다. ▶ 문의: 유방·갑상선외과센터 ☎ 032-890-2560
▶ 홈페이지 www.inha.com → 유방·갑상선외과센터 ▶ 카페 cafe.daum.net / inha_bluebird

홍천 수타산 휴양림 आय회

여름이 일찍 시작된 지난 6월 2일, 파랑새 회원 약 40명은 시원한 계곡이 있는 홍천 수타산으로 आय회를 다녀왔다. 다소 먼 거리였지만 모두가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 동안 마음에 담고 있던 걱정과 짐들을 모두 내려놓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다음 행사

- 8월 19일 : 조영업교수 환송회 예정
- 9월 : 임원진 आय회 (팀별 आय회 및 친목도모 모임)
- 10월 : 핑크리본 건강공개강좌예정 (시간 추후 공지 예정)

암진료상담실 : (032)890-3600

★ : 사이버나이프센터 □ : 유방·갑상선외과센터 ■ : 폐암센터

구분	진료과	교수명	세부전공분야	진료요일		비고	구분	진료과	교수명	세부전공분야	진료요일		비고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위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신용운	* 위암, 대장암, 위·대장질환	월, 수, 목	목	*08:30~09:30	갑상선암	내분비내과	남문석	갑상선, 당뇨병, 뇌하수체	화, 목	화, 목	암 대학제 통합진료 : 화, 수요일 오후		
		김형길	*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대장질환	수, 금	월	서비스진료			홍성빈	* 갑상선, 내분비, 골다공증, 당뇨병	목, 금	월, 수			
		관계숙	*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변비클리닉	수, 금	화				김소현	* 갑상선, 당뇨병, 내분비, 비만	월, 수, 금	화			
	외과	방병욱	위암, 대장암, 염증성 장질환	월, 화	금	암 대학제 통합진료 : 목요일 오후		외과	김세중	* 내분비외과(갑상선암), 유방	(수□), (금□) (월□), (수□)	월, 수, 금	화	*13:30~15:30	
		신석환	위암, 소화기외과	월, 목	월	서비스진료			최유미	* 갑상선수술, 소아외과	수, 금	월			
		허윤석	* 위암, 소화성 궤양	화, 목	화, 목				박신영	내분비외과, 유방	월	금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이비인후과	임재열	* 갑상선, 두경부종양, 음성장애	목	화, 목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화★), (목★)			최정석	* 갑상선, 두경부종양, 음성장애, 무통중편도수술, 소아이비인후과, 갑상선, 두경부종양, 후두 및 음성, 침샘 및 구강질환	월, 화, 금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해악학과	현인영	*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화, 목, 금	화, 목, 금			
대장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신용운	* 대장암, 위암, 위·대장질환	월, 수, 목	목	*08:30~09:30	방사선종양학과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김형길	* 대장암, 위암, 소화기질환·대장질환	수, 금	월	서비스진료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화★), (목★)			
		관계숙	* 대장암, 위암, 소화기질환, 변비클리닉	수, 금	화			유방암	외과	김세중	* 유방, 내분비외과	(수□), (금□) (월□)	월	금	암 대학제 통합진료 : 화, 수요일 오후
방병욱	위암, 대장암, 염증성 장질환	월, 화	금	암 대학제 통합진료 : 목요일 오후	박신영	내분비외과, 유방	월			금					
김경래	대장암, 대장질환, 항문질환	월, 수	수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최선근	* 대장암, 항문암, 직장암, 항문암, 소화기외과, 대장암	화, 목	금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화★), (목★)					
간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이진우	* 간암클리닉, 간염, 간경변	화, 수, 목	목	◆간암클리닉	부인암	산부인과	이병익	* 종양학, 불임, 폐경기	수, 목, 금	월	암 대학제 통합진료 : 월요일 오후		
		진영주	* 간암, 만성간염, 알코올성간질환, 지방간	월	화, 수, 금				송은섭	부인과종양	월, (수□), (금□)	수			
		안승익	췌장암, 담도암, 간담체외과, 이식외과	화, 목	화	암 대학제 통합진료 : 금요일 오후			황성욱	* 종양학, 복강경	월, 화	화, 목			
외과	이건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금	수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신우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월	월, 목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화, 금	화,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화★), (목★)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월, (화★), (목★)		비뇨기암	비뇨기과	박원희	* 중앙, 전립선질환, 요실금	화, 목	화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윤상민	* 중앙, 결석, 신이식	월, 화, 금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췌·담도 계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이든행	담도, 췌장질환, 위·대장내시경	화		외과	안승익			췌장암, 담도암, 간담체외과, 이식외과	화, 목	화	암 대학제 통합진료 : 금요일 오후		
		정 석	* 췌장암, 담도암, 담낭암, 담도암, 담관암, 담낭암, 췌장암	월, 금	화					이건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금	수		
		안승익	췌장암, 담도암, 간담체외과, 이식외과	화, 목	화		암 대학제 통합진료 : 금요일 오후	신우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월	월, 목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두경부암	이비인후과	임재열	* 두경부종양, 갑상선, 음성장애	목	화, 목	암 대학제 통합진료 : 목요일 오후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화, 금	화, 금				최정석	* 두경부종양, 무통중편도수술, 소아이비인후과, 갑상선 후두 및 음성, 침샘 및 구강질환	월, 화,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화★), (목★)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화, 금	화, 금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화★), (목★)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폐암	호흡기내과	이홍렬	* 폐중앙,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화, 목, (금■)	월, 금		중앙스트레스 클리닉	정신건강의학과	김원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정신분열증	(목*□)		*13:30~15:30 유방·갑상선외과센터 진료		
		곽승민	* 폐중앙,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월, 화, (수■), 금, 수, 목(1,3주)					임파부종 클리닉	재활의학과	김명욱	* 척추손상, 언어장애, 발통증, 의자보조기	목	월	
		류정선	* 폐중앙,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월, 화, (목■), (월■), 목							피부암	피부과	최광성	* 피부 양성종양 및 악성종양, 조갑질환, 탈모	월, 화, 금
남해성	폐중앙, 폐결절, 폐암 조기검진	* '16. 9. 5 ~ 진료시작	시간문의 : 2219		신정현	피부 양성종양 및 악성종양, 색소질환, 피부암	수, 금	월(1,3,5주), 화					() : 주별 진료		
김정택	* 폐암, 식도암, 흉선암	화, 목	화	암 대학제 통합진료 : 화요일 오후	변지원	피부암, 색소질환, 피부암, 피부노화관리	목	금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김정택	* 폐암, 식도암, 흉선암	화, 목	화	암 대학제 통합진료 : 화요일 오후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윤용한	폐암, 식도암	화, 목	화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화, 금	화, 금			
		김영삼	* 폐암, 식도암, 흉선암	(수■)	수,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화★), (목★)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이현규	* 혈액학, 종양학	월, 화, 목	화		늑종양	신경외과	김은영	* 뇌종양, 뇌신경외과, 안면경련, 허차신경통	월(▲), 금	수	▲뇌종양, 안면경련, 삼차신경클리닉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월, (화★), (목★)				박현선	뇌종양(사이버나이프), 뇌암, 전이성종양, 뇌동맥류, 안면경련, 경동맥혈관종, 모야모야병, 뇌혈관기형	수, 화(★)	목(★)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척추종양	신경외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화★), (목★)	
혈액암	혈액내과	이현규	* 혈액학, 종양학	월, 화, 목	화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월, (화★), (목★)		연부조직 및 골육종	정형외과			윤승환	* 척추종양(사이버나이프),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화, 목	화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강준순	골종양, 인공관절, 상지, 고관절, 슬관절, 관절염	월, 수	월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월, (화★), (목★)		이동주	* 중앙, 상지, 수부, 관절염			월, 금	화					
소아암	소아청소년과	김순기	* 혈액, 중앙, 내분비, 비만, 성장	수, 금	월, 화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권대규	* 중앙, 소아정형, 뇌성마비, 외상	화	월, 목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화★), (목★)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화, 금	화, 금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화★), (목★)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인하대병원의 특별한 '내일'을 만드는 가치기부

♣ 인하대병원의 발전을 후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 명의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 후원해주신 금액은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후원해주신 분들께는 병원 이용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후원방법

- ① 약정서 작성 : 방문, 온라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연락주시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② 납부방법 : 일시납 혹은 분할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 ▶ 온라인입금 : 하나은행 748-910002-39804 (예금주 : 인하대병원)
 - ▶ 자동이체(CMS) :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본인의 지정계좌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이체되는 서비스입니다(정기출금일 : 15일, 25일).

- ▶ 급여공제 : 매월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분할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교직원에 한함).
 - ▶ 방문납부 : 인하대병원 지하2층 대외협력팀
 - ▶ 문의사항 : 공금하신 내용은 대외협력팀으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TEL : 032)890-3392 FAX : 032)890-3061 e-mail : hc@inhauh.com
- 인하대병원 대외협력팀**

대한민국 최초 의료원 전 부문

국제의료기관 평가위원회 JCI 3회 연속 인증 획득



JCI



환자 안전을 위한 끊임없는 혁신,
행복하고 건강한 내일을 약속합니다

World Best Safety, Global INHA